

석사학위논문

군 인성교육의 효과 제고방안 연구

2018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용 성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선종률

군 인성교육의 효과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military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용 성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선종률

군 인성교육의 효과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military

위 논문을 국방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용 성 주

龍成周의 國防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군 인성교육의 효과 제고방안 연구

한 성 대 학 교 국 방 과 학 대 학 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용 성 주

우리 군은 2014년에 일어난 병영 내 폭력 사망사고, 총기난사사고를 계기로 장교, 간부, 장병, 군무원 즉 전 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인성을 갖춘 참다운 군인’으로의 인성교육이 전 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간부 중심의 상담기법과 같은 정형화 된 틀을 벗어나 각 부대의 실정에 따른 자율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미술·음악·독서·토크쇼 등 다양한 인성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은 인성교육이 보다 개방적 이고 자율적이며 자유로운 병명문화로의 개선과 아울러 장병들의 인성함양으로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군의 인성교육이 장병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자

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며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민관군이 개발하는 인성프로그램에 있어 공동이 추구하고자하는 원칙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성교육이 제고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군의 인성교육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강건한 군인’을 양성하여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군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인문학을 활용한 교양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행함과 동시에 정부·민간사회와 연계하여 군조직과 사회가 순환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중국에는 장병들이 현재의 군복무를 가치 있게 여기고 군인임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군 복무 기간의 인성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 전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 군이 군 인성교육을 통해 국가 전체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연구의 고찰	2
II. 인성교육의 이해	6
2.1 인성교육의 개념	6
2.2 인성교육의 필요성	8
III. 군 조직 문화와 군 인성교육의 이해	13
3.1 군 조직 문화	13
3.1.1 국군의 이념과 역할	14
3.1.2 군 조직의 특징과 문화	16
3.1.2.1 정부통제의 국가기관	17
3.1.2.2 무한한 헌신의 요구	18
3.1.2.3 규율과 통제의 사회	18
3.1.2.4 단체성이 강조되는 조직사회	20
3.2 군 인성교육	20
3.2.1 정의와 필요성	20
3.2.2 군 문제의 대표 병리현상	25
3.2.2.1 군 비리문제	25
3.2.2.2 군기의 왜곡현상	28
3.2.2.3 사회병리현상의 유입	33
IV. 군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39

4.1 인문학의 전달	40
4.1.1 한 문단 독서	42
4.1.2 대중매체를 통한 시청각교육	46
4.1.3 반복노출과 점화효과의 활용	49
4.2 군 인성교육과 사회적 연계	51
4.2.1 군 인성교육과 사회적 연계의 필요성	51
4.2.2 군 인성교육의 사회적 연계방법	54
4.2.2.1 군(軍) 주도 사회적 연계방법	54
4.2.2.2 관(官) 주도 사회적 연계방법	59
4.2.2.3 민(民) 주도의 사회적 연계방법	61
4.3 효과적인 군 인성교육을 위한 7원칙	64
 V. 결 론	 74
 참 고 문 헌	 77
 ABSTRACT	 80

표 목 차

[표2-1]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 대한 여러 견해	7
[표3-1] 군 인성교육의 변천과정	24
[표3-2] 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	27
[표3-3] 국방헬프콜 운영 현황	33
[표3-4] 신세대의 행동성향 분류	35
[표3-5]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 교육	37
[표4-1] 병영도서관 현황	44
[표4-2]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세스	55
[표4-3]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현황	57
[표4-4] 신세대 장병의 행동 및 의식 성향	62
[표4-5] CEP의 인성교육을 위한 11가지 방법	73

그 립 목 차

[그림2-1] 범죄건수와 범죄율	9
[그림2-2] 주요 범죄군별 범죄율	9
[그림3-1] 한국사회, 가정, 학교교육의 병리현상	21
[그림4-1] 인성계발 교육효과	53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의무를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자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정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¹⁾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의무적인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은 2012년에 발생한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사망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다. 상상이상으로 잔혹한 학교폭력의 실태가 낱알이 드러나면서 아이들의 인성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와 자성의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정치권에서는 교육개혁의 의지를 ‘인성교육진흥법’으로 법제화하였고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혼자 탈출해 살아남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이어 일어난 ‘윤일병’ 사건과 GOP총기난사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이 어린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이러한 병사들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군 당국의 의무소홀이라는 사회의 공분을 일으키며 병영 내 폭력의 심각성을 들추어 군에도 강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병명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게 하였다.

우리군은 1993년부터 민간에서의 인성교육을 야전부대에 실행하여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력, 자살, 성문제 등의 병명 내 범죄행위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윤일병’사건과 같은 해 발생한 GOP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군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이 장병들에 대한 내담자로서의 간부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중심이었던 까닭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전 부대로의 확산에 다소 미온적이었다 할 수 있겠다.

이후 우리 군의 인성교육은 장병, 간부, 군무원등 전 군 조직 구성원

1)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에 대한 인성교육으로 확대되었으며 군 내부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및 민간업체에의 위탁개발을 통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장병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에 과거에 비해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 중에 있으며 각 야전부대는 부대의 특성을 고려해 선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병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군조직과 민간조직을 가리지 않고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각 부대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등의 자율성 속에서 우리 군은 인성교육의 7대 덕목을 규정하여 장병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군의 인성교육이 장병들의 인성함양에 기여함과 동시에 강인한 군인으로의 정신전력 양양을 위해서는 7대 덕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비롯해 개별 실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공통된 지향에 대한 많은 제언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군 인성교육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강건한 군인의 양성으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인성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공동이 지향하여야 하는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1.2 선행연구의 고찰

현재 장병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활용은 일선부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대의 환경요건에 따라 자율적인 선택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인성교육이 단순히 장병들의 인성함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군인’으로서 정신전력의 강화를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재 되어 있는 군 인성을 키워드로 한 연구논문을 학위논문 중심으

로 검색 시, 508편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나 그중 군조직의 인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 자료는 약 30편, 그 중 군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십여 편에 지나지 않았다. 이 중 프로그램 개선과 인성검사개발 방법을 제외 한 군 인성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섯 편에 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군 인성교육의 방향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및 프로그램의 개선 및 효과를 위한 제언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군 인성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한 연구로는 석사논문으로서 첫째, 충남대학교 신현우의 「군 인성교육 범주설정과 발전방안 제언」이 있다. 신현우의 연구는 과거 우리 군의 심성순화위주와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인성교육이 새롭게 정립된 군 인성교육의 개념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문으로 개인의 내면의 성찰인 수신(修身)과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모든 무형전투력교육을 망라하여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의 요소에 있어 중요성에 따라 인성교육의 과정별로 선별적용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아홉 가지의 발전 방안 중, 연구, 교육 및 정책방안이 유기적으로 처리 가능한 조직적 개편과 사회와 연계된 통합적 관점에서의 군 인성교육을 제시¹⁾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한남대학교 이덕춘의 「軍 人性教育 向上方案에 관한 研究」가 있다. 이덕춘의 연구는 군 교육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도출하여 무형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성선설과 성악설 그리고 심리학을 통해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도덕관을 배양할 수 있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군 인성교육이 사회 여러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함²⁾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강원대학교 이상군의 「21세기 軍의 人性教育 發展方向 : 人性

1) 신현우. (2017). 「군 인성교육 범주와 발전방안 제언」.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군 상담심리 석사논문

2) 이덕춘. (2002). 「軍 人性教育 向上方案에 관한 研究」.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관리 전공 석사논문

教育 프로그램 開發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상군의 연구는 우리 군의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신세대 장병의 인지가 아닌 문헌고찰로 이루어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신세대 장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군인성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신세대 장병들의 근본적인 의식변화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군 인성교육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과 그 방법을 제시¹⁾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다.

넷째, 조선대학교 유안국의 「軍 組織에서의 人性教育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가 있다. 유안국의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장병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휘관과 간부들의 올바른 군 복무 자세와 윤리관의 확립을 강조²⁾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동국대학교 이선아의 「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선아의 연구는 현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장기지속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축과 군내 전문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부서 신설을 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언함에 의의가 있다³⁾ 할 수 있겠다.

위의 연구들은 군 인성교육의 선행연구로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군 내부프로그램의 재구성 또는 개선으로 제시하고 정신·심리학에 기반을 둔 역할놀이 등과 같은 심리치료적인 교육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학에서 논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한 군 인성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군인성교육에 필요한 군 조직 내부의 요소, 사회적 요소 및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활용하여 군인성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선행연구 된 관련 연구논문과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하되, 현재 각

1) 이상군. (2002). 「21세기 軍의 人性教育 發展方向 : 人性教育 프로그램 開發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2) 유안국. (2003). 「軍 組織에서의 人性教育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석사논문

3) 이선아. (2003). 「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부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군 인성교육 내용과 한국군사회복지학회 등을 비롯해 민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살펴, 개별 실행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도록 공통적 방향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어느 조직보다 인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진 교육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인성교육의 연구 자료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노력 하였으며 장병들이 인성교육의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Ⅱ. 인성교육의 이해

2.1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personality)은 일반적으로 인격, 성품, 개성, 기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말로 쓰인다. 주로 교육학에서 사용되며 심리학에서는 성격, 인격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인성의 의미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른 윤리적인 성품, 예의범절과 규범을 잘 지키는 사회규범에 모범적이며 양심적인 인격을 의미한다.

학문적으로 인성의 정의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다양한 견해, 특정한 개념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 왔다. 인성의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대표적인 인성이론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한 개인이 가지는 본능적인 욕구, 요구를 현실적 또는 도덕적인 제약 속에서 합리적으로 충족 시켜나가는 과정을 인성으로 보았으며,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로저스(Carl Ransom Rogers)는 개인이 겪는 모든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자아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의 인성을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는 인성은 개인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통해 학습한 행동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성연구의 아버지로 일컫는 앨포트(Gorden W. Allport)는 인격의 요소로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환경, 문화 및 행위에 관심을 가졌으며, 성격심리학자인 퍼빈(Lawrence A. Pervin)은 인성을 여러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독특하게 반응하는 구조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도 이와 대동소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성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인성이란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성격, 성질 또는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학에서는 인성교육을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知), 정(情), 의(意) 혹은 지(知), 덕(德), 체(體)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위한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크게 분류하면 [표2-1]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표2-1]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 대한 여러 견해¹⁾

구 분	내 용
(1)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현명한 의사 결정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보고, 개성존중, 적극성 함양, 긍정적 방식의 고취, 미래 지향성 등을 인성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2)	인성교육을 전인교육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만남, 즉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문화를 전승, 재구성, 창조하는 가치지향적인 활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의 세 가지 전제로 ①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는 점 ② 교육은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 ③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형성이요, 사회적 맥락에서는 문화 발전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3)	인성교육을 인간의 지·덕·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주도적, 도덕적, 공동체적인 인간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인간을 강조한다.
(4)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주로 심리학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개별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존중되며 자유롭게 개발하여, 그 특성대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
(5)	인성은 도덕적 가치가 개입된 인격과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의 총체를 가리키는 성격이 결합된 용어로, 인성교육은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성격적 윤리, 도덕적 특성으로서의 가치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인성교육이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로서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도덕적인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및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¹⁾’을 포함한²⁾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2.2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크게 도우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우리나라 교육법의 기본이념이다. 고조선부터 내려온 이러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타 국가에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나 21세기인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하여 인성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게 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해방직후 고도경제성장의 이룩, 민주사회로의 전환, IMF 극복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었다. 특히 경제의 성장은 GDP 규모 세계 12위에 오르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정신적 가치보다는 ‘출세(성공)’를 중시하는 물질가치 지상주의 가치관의 만연을 겪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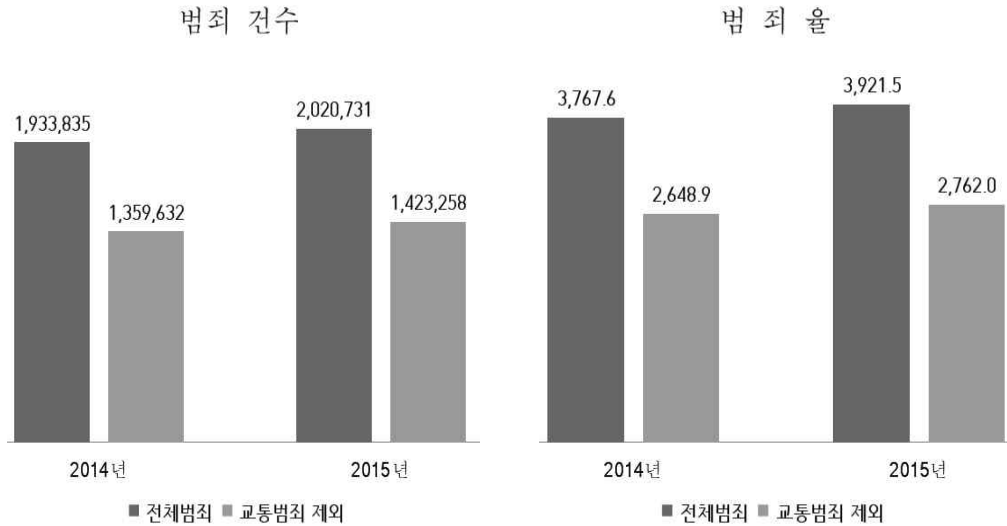
물질가치 지상주의의 폐해는 곧 사회문제로 나타나, 무한경쟁의 시대에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과 위법, 탈법 등의 일탈행위는 물론이고 [그림2-1], [그림2-2]와 같이 살인, 강도, 성폭행의 3대 강력 범죄의 증가와 부모, 자식,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패륜범죄도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1) 유길준. (2005). 『논술특강자료집』. 경기:북타운, p.125-126

1) 타인과의 관계 차원은 주로 도덕적 차원, 공동체윤리 및 환경윤리 차원은 주로 시민적 덕의 차원)을 포함한다. 정창우. (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교육과학사,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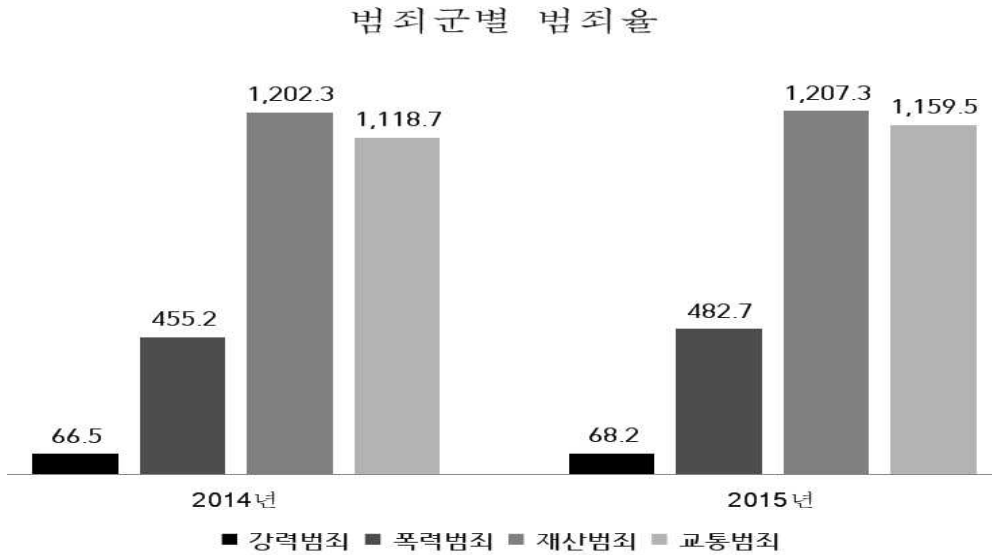
2) 정창우. (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교육과학사, p.73을 인용하여 재구성 함.

※ 범죄건수와 범죄율¹⁾



[그림2-1]

※ 주요 범죄군별 범죄율²⁾



[그림2-2]

1)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관련사이트 : <http://www.crimestats.or.kr/stats/index.k2?cmd=statPop&boardMgmtSeq=103&divCd=INDICES&pageNo=1>>

2)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관련사이트 : <http://www.crimestats.or.kr/stats/index.k2?cmd=statPop&boardMgmtSeq=106&divCd=INDICES&pageNo=1>>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의 다양화로 인해 개개인의 가치관 또한 다양화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타인과는 구별되는 저마다 가진 고유한 성격, 외형적 특징 및 생각의 ‘차이’가 ‘차별’이 아닌, ‘개성’으로 인정되어 존중 받게 되었다.

현재의 특징적인 사회문화는 최근 유행하는 ‘YOLO’와 ‘Era of Aloners’¹⁾ 문화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준말로 불확실한 미래에 부딪힌 젊은이들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Era of Aloners’는 개인주의 사고방식의 확산으로 자발적으로 혼자인 소비생활을 즐기는 aloner를 의미하며 1인 가구를 넘어 캥거루족, 비혼족, 덩펍족 등의 공동체 문화를 대체하는 개인주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¹⁾

이러한 문화는 지속하는 경기침체, 빈발하는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고위층의 비리, 무기력한 정치와 행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지 않고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각자도생’의 엄혹한 시대를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억울한 감정과 타인에 대한 혐오는 우려할 수준²⁾으로 치달았으며, 과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적폐’,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물질만능주의와 한탕주의 사상은 정신적 가치들을 배척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 존중 받기를 원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이기심을 비롯한 책임의식과 양심의 결여, 공동체 의식의 부재 등의 도덕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살인·강도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자살률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는 학교교육에도 녹아들어, 지·덕·체를 고르게 함양하고 작은 사회로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여야 하는 학교교육의 본 목표와는 달리 1등을 위한 경쟁 지향적인 지식전달 위주 교육으로 편중되어 지나친 경쟁에 이상과의 괴리감을 느끼거나 무리에서 도태된 결과, 청소년의 일탈행동³⁾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 김난도 외. (2016). 『트렌드 코리아 2017』. 서울: 미래의 창, p.305

2) 상계서, p.397

3) 어떤 사회의 사회규범이나 가치 등의 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주로 법이나 제도를 침해하는 비행이나 범죄행위

도덕적, 윤리적 병폐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 될 때마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가 강조되었을 뿐 즉각적인 조치가 마련되거나 강제적인 시행은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갈수록 대범해지고 성인 범죄보다 더 잔인해지는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에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한 여론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겨났으며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밥상머리 교육론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사회전체 어른들의 인성 또한 재고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과 청소년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강릉 여고생,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과 같이 잔인한 범죄는 청소년의 도덕적 위기와 함께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재고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이러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빗발치고, 갑질 논란과 같은 사회 각 계 각층의 그릇된 의식 및 부정부패에 대한 적폐청산이 요구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인성교육의 필요는, 그 어느 때 보다 사회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 성범죄와 언어폭력 등 각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인식의 전환을 위한 의무적인 인성교육과 의식 개선교육을 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한 미래학자는 성숙한 사회는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대량 소비사회가 아닌, 물질문명과 정신적 풍요가 질적인 향상을 동반하는 사회¹⁾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가의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진 나라가 된다면 과연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경제적 풍요보다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의 성숙도에 비례할 것이다.

1) 데니스 가보르 Dennis Gabor(1900.6.5.~1979.2.8.)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기술자. 홀로그래피의 발견을 비롯한 이론적 연구로 197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사회의 성숙은 구성원들의 시민의식, 인성을 근간으로 한다. 좋은 인성으로 빚어진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 국가를 성숙한 사회,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의 침체에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종 정책과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사회전반적인 인성교육의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인성 속에 국가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처럼, 국가의 좋은 정책과 정교한 시스템의 궁극적인 주체는 시민이므로 시민들의 인성수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인성의 배양으로 시민의식을 함양, 고취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힘써야 하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정신에 근간이 되는 백년지대계로 삼아 사회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Ⅲ. 군 조직 문화와 군 인성교육의 이해

3.1 군 조직 문화

어떠한 특정조직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가치관과 목표의식인 ‘조직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만 한다. 조직문화란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유되는 상징과 의미 체계로서 조직의 가치, 신념, 규범, 관습 및 행동 양식이 모두 포함된다.

조직문화는 조직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파괴적인 요소로 작용¹⁾하며, 또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렌즈’의 역할을 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²⁾

이러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여부에 영향을 끼치므로 구성원이 조직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자 또한 교육 시 전하고자 하는 교육내용과 정립된 조직문화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구성원에게 오롯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군은 건전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춘 올바른 군 인상을 정립한 강한 군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군 조직문화의 이해는 인성교육이 선행되기 전 시행되어야하며, 특히 인성교육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국군의 이념과 역할, 특수한 군 조직의 문화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1.1 국군의 이념과 역할

1) 양점도 외. (2008). 『사회복지학 개론』. 경기도: 광문각, p.189

2)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6). 『군(軍)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양서원, p.53

국군의 이념이란 국가의 이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한 나라 군의 존위에 대한 전체적인 의의와 개념이며 우리 군과 국민의 국방 의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 또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2장 제4조 제1호 “국군의 이념”)**

국군의 이념은 곧 군의 존재목적이다. 우리 군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 보장에는 국민의 생명, 국토를 포함한 이념과 체제까지 수호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념과 체제의 수호는 자유민주주의인 평화와 인권을 수호한다는 것으로 적의 침략, 도발 시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평시에는 평화를 지키는 것에 역점을 두는 조직임을 의미한다.

즉 우리군은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제도 아래 국민의 안전과 국토의 방위를 위한 평화 수호를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둘째,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며 셋째, 북한과의 대화, 협력은 강력한 힘이 뒷받침 되는 강한 군대¹⁾일 때 비로소 가능 하므로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군은 강한 군을 지향하나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이념에 따른 군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역할은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원칙을 준수하며 본연의 임무인 무력으로 국가를 방위하는 군사적 역할과 함께 수해복구 등의 대민 지원과 같은 부차적인 사회적 역할의 임무 수행으로 계속 되어 왔다.

1) 김용현 외. (2011). 『군대윤리』. 서울: 백산출판사, p.33

이것이 곧 국군의 사명이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국인복무규율 제2장 제4조 제2호 “국군의 사명”)

국군의 사회적 역할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전쟁의 억제와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는 치안적·민생적 역할 등 대민사업¹⁾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군의 활동²⁾으로 재해대책 지원 등의 민생을 위한 노력이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방위의 역할은 말 그대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군 존재의 절대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우리 군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군사적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정권이 바뀌고 서로 강경기조의 엄포를 놓아 우리나라 안보위기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³⁾을 본격화하는 것 외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연달아 발사하며 “(미국)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

1) 대민군사지원이라고 함. 해당 민간 당국의 요청에 응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보존을 조력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군사 활동을 의미. 이러한 활동은 통상 재난 폭동 혹은 기능 발휘를 위협하는 상태 등과 같은 국내 위기 하에 실시하게 됨.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2) 조영갑, (2005),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경기: 북코리아, p.67

3) secondary boycott.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 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서울: 박문각

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김정은 정권은 겨냥해 “세계가 본적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에 엄포를 놓았다. 이에 북한은 꺾 포위사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 실행에 옮길 의지를 구체화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러한 유례없는 수준의 언급에 근거한 북미간의 전쟁위기설 야기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안보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이를 둘러싼 국가 간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아베 정권이 집권한 이 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안보법제를 재정한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과 꺾 공격을 명분으로 이를 대내·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쌓고 있으며 미국은 외적으로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함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우방이자 혈맹인 중국은 세계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억제를 위한 제재에는 동참하겠으나 ‘신형대국관계¹⁾’의 전략에 있어, 우리나라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와 같은 군사정책 사안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통한 저지압력행사를 하고 있다.

주변국의 이러한 정세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함께, 복잡해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군이 강한 군대로서 대내·외적으로 행하여야 할 국가방위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군 조직의 특징과 문화

국가방위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은 군 조직만의 특수성을 갖는다. 군 조직의 특수성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 조직의 지휘통제의 필요에 기인한다. 전쟁준비태세 및 전쟁발발과 같은 상황에서 군의 관할권과 명령계통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1)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전략.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 동안 미국은 중국의 신행 대국관계 구축 요구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한경 경제용어사전』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엄격한 계급관계와 계급에 따른 조직원 간의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는 권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군의 특징은 정책적 지시가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군 조직의 구성이 상하의 계급구조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군 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짐으로 인해 병사, 부사관, 장교 등 모든 군 조직 구성원의 군 생활 또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규율은 엄정한 군인복무규율을 기준으로 한다.

복무규율은 군 조직만이 아닌 모든 조직이 규정하는 복무의 규율로서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원활하고 명료한 업무처리를 위한 상호작용 및 과업수행에 관한 규칙¹⁾이다. 복무규율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근거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는 조직 갈등관리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조직원들은 복무규율을 엄정하게 준수하여 조직구성원 간에 대립적인 마찰을 방지할 수가 있다.

군의 복무규율은 지휘관이 없을 경우 복무규율이 지휘관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엄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대의 복무규율은 타 조직과는 달리 구성원들에게 강제성을 띤 질서와 통제에서 복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3.1.2.1 정부통제의 국가기관

군은 국가의 군사안보 책임기관이다. 군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토와 국민, 국가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군은 전투 대비와 임무수행을 위해 총기, 탄약, 폭발물과 같은 살상가능 무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화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의 위임’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따라서 군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위임한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반드시 정부의 통제를 따라야하며 군이 하는 일의 필요에 있어, 전체 또는

1) 이성록, (2007). 『비영리민간조직 갈등관리론』. 서울: 미디어숲, p.341을 인용하여 재구성함.

부분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위계질서가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군의 활동에 대해 정부의 정치적인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기관 중 국가의 군사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문제 제기 및 국방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을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군사관련 정보를 국가의 여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1.2.2 무한한 헌신의 요구

국가는 군인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다. 군의 존재이유가 국가보위에 있기 때문이며 군인은 조국의 수호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은 유사시 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서 군의 궁극적 목표인 전쟁에서의 승리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어야만 하므로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위국헌신은 군인의 본분으로 군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행위, 직무상 필요한 모든 규범과 의무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전시뿐만이 아닌 평시에도 요구되는 군인의 절대적 의무이다. 군인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철저한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이를 통해 군인의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명예로운 참다운 군인이라 할 수 있겠다.

3.1.2.3 규율과 통제의 사회

“진지를 둘러싼 성채, 높은 산, 도시를 두르는 성벽들에도 사기가 꺾이지 않는 병사들의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자신들이 장군보다 승리와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 더 뛰어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방종과 오만함은 비난 받아야 한다. 군대에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¹⁾

(〈갈리아 전쟁기〉 제7권 52장 4절)

1) 안재원, 「쿠오바디스와 행로난(34)전쟁의 승패, 용기보다는 인내와 규율이 더

군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 끊임없이 대비하여야 한다. 군의 대비태세는 전쟁 그 자체에 준하는 조직력을 요구하며 이는 곧 고도의 규율과 통제가 필요한 군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은 장병들에게 공공의 병영생활과 사생활 및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 고도의 예절과 청결 및 정돈과 같은 개인적 습성과 자질을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습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율과 통제에 따르기를 요구하며, 군의 전 조직원은 이를 엄격하게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무와 복종 그리고 규율을 요구하는 것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행동함에 차질이 없는 조직력, 즉 팀워크(Team-work)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갈리아 전쟁기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상관에 대한 복종과 절제가 필요며,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인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힌다. 기록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카이사르¹⁾는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용기보다 인내와 규율을 결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용기는 개인의 힘이지만 절제와 인내와 규율은 조직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미 해병대는 활력을 부여하고 만족을 주는 자기규율을 폭넓게 장려하기 위해 제도에 의한 규율과 동료에 의한 규율을 사용하는 기술을 마스터 하였다.²⁾

규율을 지키는 인내와 절제를 기반으로 한 강인한 조직력이 곧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이것은 비단 군 조직뿐만이 아닌 높은 성과를 이룩하는 모든 조직의 공통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3.1.2.4 단체성이 강조되는 조직사회

위계적인 관료조직으로서의 계급이라는 서열이 강하게 작용하는 군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은 사회에 종속되어 있는 조직으로 적군의 도발에 대비하여 승전할 수 있는 전투력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따라서 집단적인 내무생활과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지는 병영생활에서 계급적 위계에

결정적이다」.

『경향신문』, <관련사이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1927005&code=960205>

1) Gaius Julius Caesar(BC 100.7.12 ~ BC 44.3.15):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읽는다. 로마공화정 말기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장군이다. 주요저서로는 《갈리아 전기》가 있다.

2) 존 카첸바흐.(2002). 『열정 컴퍼니』. 서울:세종서적, p.312

의한 명령과 복종이라는 독특한 단체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동시에 사회로부터 국가 발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비군사적 임무 즉, 군대가 사회에 봉사하는 책임을 완수하면서의 공동유대와 군사·비군사적 임무를 행하는 특수한 신분으로서의 집단 의식이 강조되는 단체성을 가지게 된다.

병영생활은 개인의 개성보다 조직의 단체성이 우선시되고 강조되는 곳이다. 장병들은 군의 단체성 속에서 다양한 성격과 행위들과 부딪치게 되지만 인간성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며 인간관계도 발전하게 된다. 특히 선·후임 및 동료들과의 집단생활, 집단 활용을 하여 예의범절과 협동정신, 양보와 배려, 무엇보다 공동의 약속이행을 철저히 익힐 수 있으며 조직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비롯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감과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통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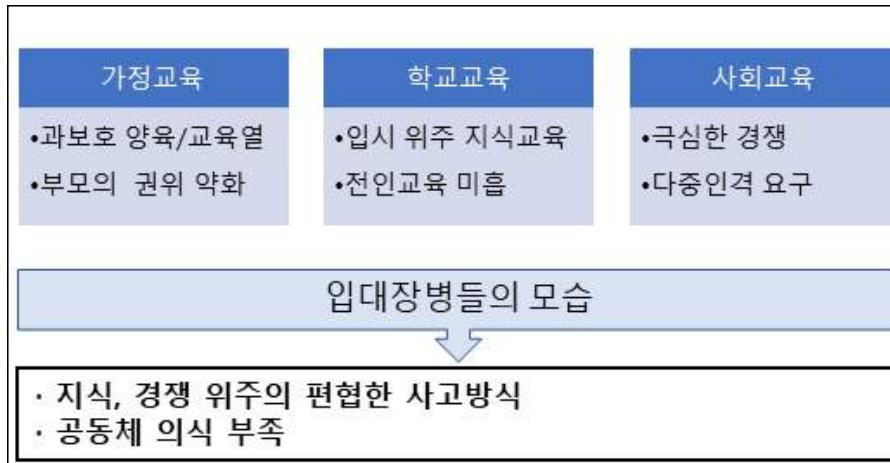
3.2 군 인성교육

3.2.1 정의와 필요성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문화의 다변화와 다양화로 인해 가치관 또한 다변화·다양화 되었으며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체로서의 면모보다 개인주의적인 면모인 스스로의 선택, 자유, 그에 대한 존중과 현재의 행복 또는 만족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현재의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과거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뛰어난 경제성장 속에서 물질만능주의의 경쟁사회, 한탕주의 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정신적 가치에 대한 소외, 극단적 개인주의 등의 폐단은 [그림3-1]과 같이 개인주의적 이기심을 비롯한 책임의식과 양심의 결여, 공동체 의식의 부재 등 도덕적인 문제로 이어짐과 동시에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 문제로 말미암은 사회병리현상은 정치권 및 공직사회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나타나는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 한국사회, 가정, 학교교육의 병리현상¹⁾



[그림3-1]

특히 군 조직 내의 총기사고, 자살, 폭력, 권력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지속적인 사건사고는, 군 조직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기에 사회전체에 더욱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인성교육법이 발의되어 사회전체에 인성관련 교육이 성행하고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사회에 만연해있는 사회병리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사회에 대한 불만은 과거에 비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현재 각종 대중 매체를 보면 ‘헬조선’과 ‘금수저, 흙수저’, ‘혼술, 혼밥’과 같은 신조어가 만연해 있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한 ‘헬조선’과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자녀의 삶이 결정된다는 금수저, 흙수저 ‘수저계급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타인을 배제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미로 ‘혼-’을 접두어로 한 ‘혼술, 혼밥’등의 신조어가 반영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

1) 육군교육사령부, 「업무보고(인성계발 교육 발전계획)」, 2001.08. P.2

떻게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약해지고 개인주의는 강해지며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군대’, ‘군인’이라는 새로운, 특수한 신분의 삶이다.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지향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문화와 국가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군대로, 군사훈련시간을 할애하여 강제적으로나마 인성교육을 받고 이를 단체생활 속에서 실현해보는 것이 군복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군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들은 ‘민간인(청소년, 대학생)-군인-민간인(대학생, 회사원)’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신분의 지위고하와 빈부격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평등하게 의무 복무자로서 군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 약 2년간 성실히 복무에 임하고 있다.

의무 복무자인 병사들은 군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병역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0대 초·중반에 지원, 군복무 경험을 쌓게 되는데 건강한 청년으로서의 신체적인 발달은 이미 모두 이루어진 상태라 할 수 있겠으나,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은 까닭에, 정신적·사회적인 성장은 아직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성장의 단계라 할 수 있겠다.

병사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는 간부들 중, 초급간부의 경우 역시 대체적으로 20대 초·중반의 구성원이 다수로서,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이념과 가치는 일반 병사보다 공고할 수 있겠으나 정신적·사회적인 성장은 일반병사와 같은 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학생의 신분 또는 갓 학생신분을 벗어난 포레이므로 군인성교육은 사회에서의 인성교육과 같이 전인교육의 연장이어야

하며 군인으로서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간인의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이 된 장병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정립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과 열공의지를 함양하여 국가보위에 대한 사명의식과 새 시대의 군인 상을 확립,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엄정한 군기를 통하여 왕성한 사기와 단결심의 배양 및 탁월한 군인정신을 육성¹⁾하여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사회와 군 조직 문화 사이, 개인과 단체와의 가치관의 괴리감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그릇된 병영문화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장병들의 이러한 갈등은 군 인성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군은 [표3-1]와 같이 1993년 국방정신교육원에서 장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매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군 장교 양성과정은 물론, 각 군 부대마다 장병들의 활동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의 항목을 필수로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2014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인성교육이 민간과 협력하게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1) 차영구. (2009).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p.90을 인용하여 재구성함.

[표3-1] 군 인성교육의 변천과정¹⁾

구 분	내 용
(1)	1993년 국방정신교육원에서 장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연구하여 개발함
(2)	1993년 8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국방정신교육원에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반기단위로 지속적인 순환교육이 가능한 단기 집중교육용 인성프로 그램 4종을 추가 개발하고 시험 적용함.
(3)	1994년 12월 국방부에서 국방정신교육원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검토 승인하고 정훈·문화 활동 지시를 통해 전 군에 시달함.
(4)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각급 단위부대별로 부대 정신부대 체계 내의 반기 집중 정신교육계획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함. (4종의 군인성교육 프로그램 : I ~ IV)
(5)	2014년부터 국방부 정훈·문화 활동 지시 및 각 군 정훈공부활동지시에서 인성교육이 누락됨에 따라 각급 부대의 반기 집중교육 계획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되고,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이나 지휘관 시간 등을 이용한 수시 기회교육으로 전환됨.
(6)	2016년 2월 ‘장병들의 인성 개발과 교육에 전력을 경주해 온 육군은 서울대 인성교육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를 통해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함.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군이 직면한 군 조직의 윤리문제는 한 가지 측면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고 있다. 군납비리와 소위 말하는 갑(甲)질의 행위, 가혹행위, 성추행 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오래전부터 쌓여온 관행으로서의 폐단이라 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맞물려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조직 내부의 문제점 척결은 군대 윤리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으며 군 조직과 전 사회, 즉 국가 전반의 노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병

1)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6). 『군(軍)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양사원, p.36
표3-1

리현상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여러 부문의 인성교육과 병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방위를 위해 국가와 국민, 군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대하는 군인은 항시 전투태세를 갖추어야하는 체력과 정신전력이 강한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의 국가관, 가치관, 윤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군 조직구성원과 민간사회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군 인성교육에서 이를 위한 내용이 절대 필수항목 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인성교육과 군 인성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군 인성교육의 목표는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선진민주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군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2.2 군 문제의 대표 병리현상

3.2.2.1 군 비리문제

군 비리문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부적 비리와 외부적 비리로 크게 나뉘보면 내부적으로는 방산비리와 같은 군납비리와 군 인사 비리·병영 내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가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신체적 결함을 만들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병역비리가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1337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간첩좌익·군기사범, 테러, 외국스파이, 보안, 방위산업관련 부정비리, 군 관련제보, 부패/공익, 성폭력 사고에 대한 신고·제보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신고·제보된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¹⁾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방위산업 부정비리는 투명한 국방,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로 군용물 불법 유출 및 거래 행위, 군 시설 공사간 불법하도급 및 불량 자재의 사용, 군 공사발주 또는 물품조달/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한 금품수수·이권개입 및 청탁, 군부대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무기체계 도입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제도·방법으로 인한 불이익, 군과 특정업체가 유착·결탁되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당한 이득제

1) 국군기무사령부. <관련사이트:http://www.dsc.mil.kr/1337/1337_main.html>

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¹⁾

방위산업 부정비리는 개인의 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여 군 전체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위중한 일로서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군내 비리 사항이다.

병영부조리는 군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군 부대 및 장병들이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끼친 사례, 병영 생활 간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각종 부조리 사례, 군 전투력 발휘를 저해시키는 각종 문제 사례, 군의 관심 부족으로 민·군 갈등이 커지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²⁾

이러한 군 비리문제는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군 내부적으로는 정신전력에 큰 손상을 입히고 외부적으로는 민의 대군 신뢰도를 무너뜨려 군의 전략과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군 신뢰도의 하락이 가지고 오는 위험요인은 ‘불신’이 곧 ‘저항’의 원인이 되기 때문으로 국가와 군이 하고자하는 전략과 전력에 있어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저항을 받게 된다면 단순한 전략과 전력의 결손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군의 존립에 큰 위험이 된다.

현재의 시민들은 진보하는 대중 매체를 통해 스스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사회적 현상의 저널리스트가 되기를 자처하고 그에 대한 반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의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참여수준이 아닌 의제를 결정하고 적극적인 집단행동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한다. ‘여론’은 ‘피플파워’³⁾로서 정치와 정책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데 대통령 탄핵, 원자력발전소 건립과 같은 정치사회 문제와 사드배치, 군 장성 갑질 등의 군 관련 문제에 여론이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하게 하였는지가 이들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조직에 있어 좋은 여론은 곧 신뢰에 있으며 공공기간의 신뢰란 청렴도라 할 수 있겠다.

1) 국군기무사령부. <관련사이트:<http://www.dsc.mil.kr/1337/5.html>>

2) 국군기무사령부. <관련사이트:<http://www.dsc.mil.kr/1337/6.html>>

3) People Power: ‘민중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피플파워(people power)’는 필리핀에서 발생한 2차례의 시민혁명을 부르는 말로, 피플파워가 발생할 당시 집권하고 있던 마르코스 대통령과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모두 물러나게 됐다.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서울: 박문각

2015년 작성 된 [표3-2]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를 보면 군의 신뢰도는 과거에 비해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3-2] 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¹⁾

2015. 12. 31. 기준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 청렴도(점)	9.01	9.21	8.15	8.98	8.40	8.52	7.83	7.12	7.52	7.18
통계명	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 소속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매년 청렴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다음연도 청렴정책의 환류 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용어설명	•종합청렴도 : 공사계약, 내자구매, 복지기금 관리 업무 처리 경험에 있는 일반국민과 내부직원·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국방부의 청렴 지수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의미해석	•종합청렴도는 일반국민, 내부직원,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 •최근 방산비리 사건 발생의 영향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오고 있음.									
기타	•국방관련 비리사건 현황 * 계룡대군무지원단 납품 비리(2009년), 급식 납품 비리(2011년), 밥집 비리(2013년), 세월호 및 방산비리(2014년), 해군 방산비리(2015년)									

[표3-2]에서 알 수 있듯 군에 대한 청렴도가 낮아지는 것은 방위산업관련 부정부패, 공관병 갑질 논란과 같은 군 비리와 군 부조리로 인해 국민의 군 관련 기관의 청렴에 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과 같은 안보위기 시 국민이 군에 대한 감사와 신뢰는 군장병과 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의무병과 직업군인 등에 대한 감사(感謝)의 신뢰로 군 조직에 대한 신뢰와 다소 상이하다 할 수 있겠다.

군의 정책은 안보상의 이유로 철저한 보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여서 안 되는 이유를 가진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지가 필요하다.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조직이므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1)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 p.163

성장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존립하는 군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인 모든 군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 또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몸담은 조직에 대한 믿음으로 충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고 엄정한 징계로 유사한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 체제의 결속을 다져 청렴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2.2 군기의 왜곡현상

군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존폐와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야하는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전투 집단’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통해 속전속결을 하여야한다. 이때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지휘통제에 관한 상명하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군 조직은 위계질서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라는 규율을 가지며 모든 나라의 군은 군기를 군의 생명으로 다룬다. 군기란 말 그대로 군대의 기강을 뜻하며 우리 군은 군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2장 제4조 제4호 “군기”)

그러나 군대의 생명인 군기가 오히려 군 조직의 와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다. 바로 군기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다.

군인복무규율에서는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라고 되어 있다. 상하 위계질서에 따른 복종은 오로지 복무규율에 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군기는 기본적으로 복무규율을 엄정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 기강을 위한 상위계급의 명령 또한 복무규율에 준하여야 하며 국가 위기상황이 아닌 평시의 명령은 군 조직 내의 규범인 군인복무규율과 사회적 규범에서 결코 어긋나서는 안 된다.

군기의 왜곡된 현상은 ‘상명하복의 절대성이 무엇에 기인하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에 대한 고찰 없이 복무규율을 기반으로 한 복종이 아닌, 단순히 상위계급으로서 보다 하위계급에게 상명하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군기는 오직 복무규율과 전우애로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자존심이나 자만심과 오인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적인 제재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군대는 지휘체계를 위해 계급을 나누었을 뿐, 지휘체계의 구분이 신분과 인격에 차이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복무규율 제3장 제14조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3장 제15조 제2호 “사적 제재의 금지”)

엄한 군기와 엄격한 복무규정은 군대의 권위를 통한 기강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는 있지만 존경이 담긴 권위로서 빛어지는 참다운 조

직의 기강문화를 생성해 낼 수는 없다. 그런 까닭으로 조직에 속하고, 임하는 모든 조직원은 군기와 복무규정의 고유한 가치, 그 나름의 가치 이외에, 이를 과대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¹⁾

자부심과 높은 사기는 군 자체가 가지는 존중하여야할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군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마저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릇된 군기에 대한 인식은 군 조직 내 여러 가지 가혹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것이 폭언과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신체적인 구속, 체벌과 구타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자살,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이 2014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윤일병 사건으로 육군 28사단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의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릇된 병영의 군기문화의 행태에 간부가 직접 가담하여 주도, 묵과한 것으로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지켜본 40여명의 동료병사 중 그 누구도 상부에 보고,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계질서에 따라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상급자의 군기문제와 하급자의 기수열외와 같은 하극상의 그릇된 군대문화가 계급과 무관하게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하는 의무²⁾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윤일병이 생활한 의무반은 부대원이 6명인 소대로서 유모(당시 22세)하사가 임관 1년 만에 의무지원관으로 부대관리를 맡았는데 유하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모(25)병장을 ‘형’이라고 부르며 의무반 내에서 선·후임간의 구타는 있을 수도 있으니 참견하지 않겠으며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으라는 등의 권력을 내어주었다. 이러한 행태를 주변의 어느 누구도 바로 잡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릇된 군기에 대한 암묵의 동의라 할 수 있다.

그릇된 군기문화는 군 조직 내의 공고한 복무규율을 지킴으로 인해

1) Karl Clausewitz. (2006). 『전쟁론』. 김만수. 서울: 갈무리, p.304를 인용하여 재구성함.

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제2항 <개정 98.12.31>

조직 내부의 조화를 갈구 하지만 군조직원의 조화와 갈등이 대치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을 털어놓거나 목격한 불의에 대해 선뜻 고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병사 간, 간부 간의 괴롭힘과 비하, 성적발언 등을 발견, 해결,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가지는 병영생활에서의 차이점과 가치관의 다양성 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노력의 일환으로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여 병사와 간부, 부사관과 장교 간 오해와 불신의 불식을 위해 최대한 소통을 하려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서로 간 본인에게 돌아올 신변 및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전제되기 때문에 소통자체를 기피하거나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편의에 의해 확대·축소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고충을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병영생활 상담서비스인 국방 헬프콜, 각 부대별 마음의 편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통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방 헬프콜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통한 상담은 장병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하였다.

국방 헬프콜은 2014년 12월 국방 헬프콜 센터로 확대 개편된 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2015년 신고/상담건수가 2014년 대비 135%(23,224건)로 증가하였다. 장병들의 병영생활고충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2015년 자살충동 상담 311건 중 202건에 대해 소속부대/유관기관(119, 112)과의 공조로 신속한 신병확보 및 인명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왔고,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였다 평가하고 있다.¹⁾

2005년 육군훈련소 가혹행위와 GOP에서 일어난 총기사고 이후 군

1)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 p.95

생활에 부적응한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장병 기본권 전문 상담관’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2008년에는 상담영역을 장병들의 기본권 외에 개인고충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친숙한 용어로서 지금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7년까지 연대급 부대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 중에 있다. 2015년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중 23명을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관련 고충상담을 전담하기 위한 성 고충 전문 상담관을 별도 운영 중에 있다. 1)

[표3-3]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방 헬프콜과 전문 상담관을 통한 장병들의 문제해소는 사례분석을 통해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영생활 문화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초급간부와 훈육관, 주임원사 등 준 상담관들이 내담자로서의 상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활용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장병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영 내 갈등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군기사고²⁾의 근절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1)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 p.96 재구성

2) 군 사망사고는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과 물리적인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한 사망사고를, 군기사고는 군형법과 군인복무규율 등 각종 법규를 고의와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의미한다.

[표3-3] 국방헬프콜 운영 현황

구 분		계			성폭력 신고 /상담			군 범죄 신고 /상담			병영생활 고충상담		
		계	전화	사이버	소계	전화	사이버	소계	전화	사이버	소계	전화	사이버
2014년	계	17,258	7,670	9,588	93	84	9	335	244	91	16,830	7,342	9,488
	육군	11,536	4,344	7,192	24	21	3	200	135	65	11,312	4,188	7,124
	해군	986	226	760	4	3	1	12	6	6	970	217	753
	공군	907	336	571	4	2	2	10	6	4	893	328	565
	해병대	498	256	242	2	2	·	26	21	5	470	233	237
	국직	810	125	685	5	3	2	8	3	5	797	119	678
	민간	1,337	1,293	44	47	47	·	64	59	5	1,226	1,187	39
	미상	1,165	1,073	92	7	6	1	15	14	1	1,143	1,053	90
	기타	19	17	2	·	·	·	·	·	·	19	17	2
2015년	계	40,482	18,587	21,895	58	41	17	272	194	78	40,152	18,352	21,800
	육군	28,791	10,290	18,501	32	20	12	168	117	51	28,591	10,153	18,438
	해군	1,651	660	991	5	4	1	22	17	5	1,624	639	985
	공군	1,462	708	754	2	2	·	9	7	2	1,451	699	752
	해병대	1,191	793	398	2	1	1	30	21	9	1,159	771	388
	국직	1,395	465	930	1	·	1	11	6	5	1,383	459	924
	민간	4,096	3,991	105	11	11	·	31	26	5	4,054	3,954	100
	미상	1,729	1,530	199	5	3	2	1	·	1	1,723	1,527	196
	기타	167	150	17	·	·	·	·	·	·	167	150	17

3.2.2.3 사회병리현상의 유입

사회병리현상이란 범죄·비행·자살·부랑·매춘·실업·빈곤·미신 등의 여러 가지 사회악이나 사회적 곤란을 말하며 개인·집단·지역사회·전체사회·문화 등에 있어서의 일탈이나 기능장애, 그리고 발생조건이나 결과현상에 있어서의 이상·일탈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결과현상에 있어서의 이상·일탈은 일반적으로 이상행동·일

탈행동이라 일컬어지며, 앞서 말한 범죄·비행·자살과 같은 여러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비행의 경우, 비행 그 자체는 결과현상이며, 병리의 실체는 소년의 비뚤어진 성격이나 생활 장애에 있는데 이것은 그 소년을 둘러싼 내부적·외부적 조건에 있어서의 이상·일탈이 원인으로서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¹⁾

사회병리현상의 여러 기반 요인 중에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핸디캡이 원인이 되는 개인적인 조건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최근의 사회병리현상을 보면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성향보다 사회적·문화적인 이념과 가치관 및 현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병리현상 중 사회전반적인 공동체의식의 부재로 인한 이기주의와 책임회피를 비롯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구속을 가변이 여기는 제제 및 구타 등의 물리적인 문제가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또한 이는 나날이 심각성이 더해지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인 이념과 가치관 및 현상이 주는 사회병리현상을 쉽게 접하거나 그것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해온 청소년들이 병영생활을 하므로 인해 빚어지는 병영갈등의 요인들은 [표3-4]와 같은 신세대의 행동성향에서 유추 할 수 있다.

1) 『두산백과』 中 발췌, 인용

[표3-4] 신세대의 행동성향 분류 1)

구 분	주 요 내 용
개인주의	· 집단행동보다는 개별행동/ 자기만의 공간을 선호 · 남들과 같이 행동하기보다는 자기표현을 중시하고, 자기식 사고방식에 의해 충동적 행동
언어유희적 경향	· 일상생활의 개그화, 말투의 유니섹스화(남녀를 구별할 수 없는) · 논리적 언어 구사보다는 감각적, 직선적인 언어구사 · 진솔한 표현보다는 유머와 위트를 중시
소비 / 여가중시	·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며 자기 존재인 식의 한方便임 ·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절제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보다 큰 소비 행태를 보임 · "일은 여가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인식하며 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
외모/외형중시	· 외모와 패션에 지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물건의 선택의 기준은 실용성보다는 외형과 분위기에 좌우
유아기적 행동	· 일정한 틀에 얽매여 사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거부하는 유아기적 의식에 의해 나이에 비해 의젓함 부족, 어린말투, 캐주얼 한 복장을 선호
인스턴트 선호	· 식품 뿐 아니라 즉석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선호
영상매체 광	· Cable TV에 생활 대부분 의존 · 라디오 들으며 공부하는 식으로 이것저것 산만함

또한 사회병리현상의 문제는 곧 장병들의 복무부적응을 야기하기도 한다. 복무부적응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능력에 있어 성실한 현역복무에 문제를 가진 것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에 제49조 1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에 따르면 복무 부적응자는 다음과 같다.

1) 육군 교육사령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휘통솔 지침서』. p.18

1. 능력의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정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우리 군은 복무 부적응자를 관심병사로 두어 관리한다. 관심병사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이 가지는 지휘체계와 이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지휘결함을 비롯해, 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부적인 문제 혹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겪는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다.

국방부는 2015년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A·B·C의 3개 분류 등급을 ‘도움’과 ‘배려’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도움’그룹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병사,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를 통해 복무적응이 가능한 병사를 의미한다. 이는 2014년 GOP의 총기사고 이후 국회를 비롯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복무 부적응자를 식별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부적응 병사를 도울 수 있는 상담관과 그림캠프교육대와 같은 부차적인 지원의 확충을 비롯해 독서, 미술, 음악 치료 등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군은 군 문제와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3-5]병 복무 단계별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중점 활용하고 있다. 병 복무 단계별 인성함양 교육이란 장병들의 입대부터 전역까지 복무단계별로 필요한 덕목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병교육의 인성교육은 자신감 부여와 자대 복무에 따른 부담감 해소, 적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1주차와 5주차에 각 4시간씩 실행하고 있다. 육군 표준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 내용으로 신교대대장 또는 중대장의 주도적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표3-5]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 교육

단 계	과 정	교 육 목 표
1단계	신병교육	1. 군인기본자세와 정체성 확립 2. 규율준수와 헌신하는 태도 함양 3. 긍정적 수용 4. 존중과 협력을 통한 전우애 함양
2단계	전입병 비전설계 교육	1. 긍정적 태도로 충성 함양 2. 비전설정을 통한 자신감 함양 3. 창의적 팔로워십 개발
3단계	자대 복무간 인성함양교육	1. 자기성찰을 통한 역할과 책임완수 2. 이해와 존중으로 협력적 대인관계 형성 3. 품위와 자부심, 헌신적 자세 견지
4단계	분대장 리더십 교육	1. 역할과 책임완수, 술선수법 2. 분대원 존중과 소통 및 협력 3. 리더의 판단력과 자기관리 능력 4. 헌신적 태도와 선공후사
5단계	전역병 미래설계 교육	1. 군 생활 성찰을 통한 삶의 비전설계 2. 사회적응 능력 배양 3.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완수

전입병의 비전 설계 교육은 전입 1개월 이내의 장병을 대상으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부대정신의 제고 및 나의 군 생활과 인생설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데 16시간의 육군표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대소개, 단결활동 및 봉사활동, 전입환영행사 등 부대 여건과 특성에 따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비전설계교육은 연대장 책임 아래 통합교육으로 진행하며 전문교관과 군종장교가 교관임무를 수행하며 자대복무 간의 인성교육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인식 및 전우애 함양에 중점을 두고 반기 1회 집중인성교육에 포함해 육군 표준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적용하고 있다.

육군 표준프로그램은 반기 단위 집중인성교육 시 교육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부대별로 순환 시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회정서 역량증진, 협력적 문제 해결, 군인정심과 삶의 가치 고양 등으로 목표를 차별화하여, 올해부터 410개 대대를 선정, 외

부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 강사 지원이 제한되는 부대는 자대 간부가 진행하고 있다.

분대장 리더십 교육은 팀워크 증진, 리더십함양, 역할 인식에 중점을 두고 분대장 양성 기간 중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표준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창의적 프로그램도 추가해 시행할 수 있다. 전역병 미래설계 교육은 전역 예정 병사를 대상으로 군 생활 정리 및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육군 표준프로그램과 부대별 창의적 프로그램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Ⅳ. 군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우리 군의 인성교육은 민주시민이자 강한 군인인 장병을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될 수 없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새롭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군의 병영생활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장병들이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바람직한 군인 상을 육성하여 전군의 정신전력의 강화와 함께 선진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여,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선진민주국가의 초석을 이루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인성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군 인성교육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설계하고 활용하며 이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의 준거가 필요하다. 각양각색의 장병들의 성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이 일회적이고 소모적이지 않은, 유의미한 인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군 인성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하여야한다. 이것은 개별적인 과정이 아닌 군 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군 문화 및 병영생활의 전체에 걸쳐 연계되어야 하며 민간사회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 원칙은 장병들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 인문학적 교양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학적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의 개발에 민간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사회적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4.1 인문학의 전달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 탐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으로 토론과 통찰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유와 소통의 학문으로 철학, 문학, 사학, 심리학, 사회학, 언어학 등 매우 광범위하다. 문학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며 철학은 모호한 현실을 구체화 시켜주는 논리와 분석을 키워준다.¹⁾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여 인간의 심리적 원리를 밝히는 심리학은, 인문학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다.

인문학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문학을 자기 세우기의 학문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문학은 최근 사회에 정체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장병들 또한 인문학을 통해 사람과 사람사이, 사회, 나아가 자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객관적인 성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해 현상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증진 시켜 스스로가 겪는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갈등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견해를 서로가 공유하므로 인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을 시작으로 주관적 감정에 대한 공유를 통한 전우애를 공고히 함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우리 군 또한 인문학을 통해 장병들의 인성함양을 꾀하고 나아가 병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정신전력원이 간부와 장병을 위해 인문학을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먼저 2017년 3월에 발간한 『국방인문총서』는 고급 간부들의 인문학 소양 함양 및 정신전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과 밀접한 인문학 주제를 해당 전문가가 내용을 정리, 편집하여 간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서적으로 두 달에 한 편씩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대대급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장병을 위한 노력은 국방정신전력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양

1) 서성원. (2012). 『태권도연』. 서성원. 서울: 애니빅, p.314.

한 인문학 콘텐츠로서 장병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인성 교육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블로그의 인문학 콘텐츠 중에서 72편을 엄선, ‘군, 인문학에 빠지다’라는 단행본을 제작하여 야전에 배포하였다. 단행본은 전쟁문학을 비롯한 음악, 심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콘텐츠마다 군인정신과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도울 수 있는 내용들로서 장병들이 인문학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육해공군 모두 장병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는 창원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군 합동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여 장병들의 인성함양과 건전하고 폭 넓은 사고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군본부는 역사·경제·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병, 군무원 및 군인가족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육군은 독서를 통한 병영혁신을 위해 독서전문가가 부대별로 방문, 장병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지도하는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은’ 육군역점사업으로, 국방부 추진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군 150개 대대급 부대 중에서 73%인 110개 대대가 육군일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군이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적 교양을 함양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위한 이론들을 논리화하고 체계화하여 일관적으로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이 무엇이 인성이며 인성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격 형성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인격을 형성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정의적 모호함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여러 장르의 다양한 인문학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문학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지만 장병들이 접하는 인문학의 범위는 개인의 취향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영상매체 미디어에 익숙해 ‘책’이라는 거부감과 ‘인문학’, ‘교육’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주는 흥미도의 저하로 인해, 훈련 등을 포함한 일과시간 이후의 여가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인문학을 스스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장병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독서와 시청각교육에 있어,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을 접하고 여러 시각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군은 이를 무엇으로 경험하게 하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사유하고 타인과 공유하며, 나아가 체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병들의 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4.1.1 한 문단 독서

“책을 읽을 때는 누구나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을 읽는다.”¹⁾

독서는 ‘간접 경험의 장’이다. 책을 통해 학문적 교양을 쌓는 것 보다 책 속의 세계관, 지식, 정서, 느낌 등 내가 미처 겪지 못했거나 겪은 일에 대한 다른 시각에 대한 타인의 경험과 깨달음, 지혜를 간접 경험하여 현재 스스로가 속한 환경, 현실과 상호작용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독서의 가장 큰 이점이다.

독서의 이러한 이점은 심리치료에도 활용하는데 전문용어로는 독서요법이라고 한다. 독서요법이란 자기치지와 비슷한 책의 주인공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²⁾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의 지적, 정서적 적응을 돕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기원전 1000년 경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 도서관 입구의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The healing place of the soul)’라는 글귀나 중세 스위스의 한 수도원 도서관에 인각된 ‘영혼을 위한 상자(Medicine Chest for the soul)’라는 글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남은 ‘마음을 위한 약(Medicine for the mind)’이란 문장이 이를 증명한다.

1) 가토 슈이치. (2014). 『독서만능』. 서울: 사월의책,
2) 전정재. (2005). 『왜 공부 안하나』. 서울: 대교출판, p.111

1800년대에는 독서를 통한 치료법이 심리요법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1950년대부터는 문제아와 비행청소년의 치료, 죄수들의 그룹치료 방법으로도 적용, 효과가 입증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나왔다.¹⁾

독서요법에서는 물질적 안전에 대한 욕구를 영웅의 전기나 과거 일어난 일들에 대한 민담 등의 관련 책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욕구는 가족간의 사랑을 담아낸 책이나 청춘로맨스를, 성취에 대한 욕구는 모험이나 경험담, 소속에 대한 욕구는 민족이나 사회 또는 집단을 주제로 한 책을 읽음으로 하여 욕구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에 대한 욕구 또한 원하는 분야의 책을 통해 충족 할 수 가 있다.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독서가 자아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수단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변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지적적응의 인성형성 외에 감동과 공감을 통한 인격적인 인성, 오락과 같은 유희적인 감정을 통한 정서적인 인성 형성을 기대할 수 있어, 독서는 인성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군 또한 이러한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병들에게 정보이용과 학습 및 문화 활동 등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2009년부터 병영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병사 및 군 간부들에게 자율적인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였다. 또한 소규모 병영도서관을 대대급 병영도서관으로 통합 운영하며 장서보급을 확충하여 2014년 5,111,786이던 장서가 2015년에는 백만 권 늘어난 6,222,796이 되었으며 이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독서코칭과 독서동아리 활동 등을 장려하였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교양을 증진시키고 정서함양을 꾀하는 자율적 독서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²⁾

군에서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며 장병들 간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4-1]과 같이 병영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병영도서관이 없는 부대, GOP를 비롯한 해·강안 소초362곳에는 독서카페

1) 임영규. (2005). 『독서는 힘이 세다』. 서울: 다산북스, p.199~200

2)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p.12

를 개설하여 격오지 장병들의 독서환경을 개선 및 장병들의 인문학적 교양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7년 250개 부대에서 진행되는 병사 대상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군 간부 인문독서 강좌’, ‘신병독서지원 프로그램’, ‘독(讀)한 북 콘서트’,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으로 구성되어 실행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정서 함양에서 나아가 사고예방 및 간부와 병사, 장병 상하계급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4-1] 병영도서관 현황

연 도	제대별		장서 보유량별 도서관 수							총 장서량 (권)
			계	500권 이하	1,000권 이하	2,000권 이하	3,000권 이하	5,000권 이하	5,000권 초과	
2014	계		1,660	214	334	528	283	184	117	5,111,768
	유 급 군	소계	1,303	154	266	444	224	141	74	3,557,904
		대대급 이하	1,036	122	236	365	186	103	24	1,773,788
		연대급 이상	267	32	30	79	38	38	50	1,784,116
	해 군		197	52	53	37	24	16	15	543,596
	공 군		106	-	8	35	22	22	19	450,170
	국 직		54	8	7	12	13	5	9	560,098
2015	계		1,888	151	286	647	364	289	151	6,222,796
	유 급 군	소계	1,516	104	230	558	293	231	100	4,294,686
		대대급 이하	1,230	87	206	476	242	178	41	2,445,685
		연대급 이상	286	17	24	82	51	53	59	1,849,001
	해 군		213	45	47	50	33	21	17	665,045
	공 군		110	-	4	30	25	27	24	557,554
	국 직		49	2	5	9	13	10	10	705,511

현재 실행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과 독서코칭 등의 프로그램은 장병

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장병들이 책 한권을 통독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 편식을 하듯 편독할 수도 있다. 또한 토론에 직접 참여하기가 부담이 되는 장병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병들이 광범위한 분야를 접하고 다채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소설, 자기계발, 만화, 역사, 심리학 등 각 장르별 책 속에서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문단, 생각하게 만드는 문단 또는 사회적 이슈가 담긴 문단, 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문단, 책의 핵심 내용이 담긴 문단, 삶의 위로가 되는 문단 등을 발췌하여 배부, 참여하지 않는 장병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한다. 더불어 읽은 문단에 대한 견해를 반드시 적어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기명으로 제출한 견해들은 단위별로 취합하여 정해진 단위 기간별로 재배포 하도록 하여 장병이 자신이 쓴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타인의 견해를 자연스레 읽게 되어 타 장병들과의 견해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독서하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박학(博學)으로 곧 두루 혹은 널리 배운다는 것과 두 번째 방법은 심문(審問)으로 곧 자세히 묻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심사(愼思)로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며, 네 번째 방법은 명변(明辯)인데 명백하게 분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독행(篤行)으로 곧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실천한다는 것이다.¹⁾ 한 문단을 읽는 것을 수박 겉핥기라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한 문단을 읽음으로도 다섯 가지 독서의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 문단 독서의 방법은 비록 전체 내용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의 내용을 압도하는 함축된 문단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 문단 읽기는 책의 중요 부분에 쉽게 닿을 수 있으므로 장병들이 통독이라는 부담을 갖지 않고 작은 내용이라도 읽고자 하는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그 문단이 속해 있는 책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비관심 분야의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으며 나아

1) 한정주, (2008). 『조선 지식인의 독서 노트』. 경기: 포럼, p.107.

가 전 장병이 올바른 독서 문화와 토론참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기대한다.

문단의 발췌는 상부에서 전 부대로 일괄적으로 배포 할 수 있겠고 군 내부 공모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의 대군 관심과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민간공모를 활용 할 수도 있겠다.

4.1.2 대중매체를 통한 시청각교육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여러 교육매체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남녀노소나 지역의 구애를 덜 받으며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여타 다른 교육매체들에 비해 대중성과 신속성을 이 뛰어난 교육매체라 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교육은 교육, 계몽, 충고를 비롯해 사람을 대신하여 대화해주는 기능 및 정보제공의 기능 외에, 사교와 흥미 그리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오락기능을 가지고 있다¹⁾는 것이 타 교육매체와의 차이점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대중매체 중에서도 텔레비전과 같은 시청각 매체의 활용은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인간의 뇌는 시각과 청각에 있어 동시에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 시각적인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며 무의식적으로 초당 천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감각기관 중 피부가 백만 개, 귀가 십만 개의 정보를 초당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한다면 눈, 즉 시각적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읽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장병들도 있을 것이고 한 문단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인문학적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문학의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중매체가 방송을 실제 접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시청각교육조차 관

1) 배장오. (2007). 『사회교육론』 서울: 서현사, p.160

심이 없는 장병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라도 접하게 하여 인지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거나¹⁾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포맷(format)또는 강연 등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겠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짧은 강연으로는 ‘테드(TED)’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참고 할 수 있겠고, 보다 깊이 있게 긴 시간으로 꾸며진 것으로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다.

기술(Technolog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디자인(Design)을 의미하는 테드는 기술과 예술, 그리고 감성이 어우러진 강연회로 청중을 감동시킨다.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 모토로 하여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연사가 약 18분간 기술, 오락, 디자인 등에 관련된 강연을 한다. 이러한 강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저명 인사가 참여하여 흥미도를 높인다는 것 외에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현장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들을 생생히 전달 받을 수 있어 보는 재미와 관심분야의 저변확대라는 흡인력을 가진다.

테드가 보다 학술적이고 실험적인 거대담론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는 사람들 간의 교류,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치유 즉 힐링의 측면이 강한 미니 프레젠테이션 초청강연 프로그램이다. 테드가 외국프로그램이므로 자막을 읽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세바시는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므로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고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쉽게 닿을 수 있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어른’은 지적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인문학적 통찰을 재미있게 구성한 특강 쇼로 전문적

1) 2017년 2월에는 육군 장병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요협력 내용은 군 간부정예화 및 장병 인성함양을 위한 EBS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국민 안보 공감대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등이다.

지식을 어렵게 말하기보다 쇼라는 형식을 빌려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신세대장병들은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고 길들여져 있으므로 활자의 형식을 빌린 인문학의 전달보다 토크쇼와 같은 스토리텔링의 형태, 즉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그 이야기들을 관찰하며 간접적으로 참여, 공감할 수 있는 시청각교육을 활용하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미군의 경우 강의 형태의 주입식이 아닌 신문, 방송, 웹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훈련 상황과 지휘관 메시지는 물론 각종뉴스와 오락프로그램까지 제공하여 장병 중심의 맞춤형 수단의 제공으로 정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군의 인성교육이 ‘교육’이라는 단어에 얽매어 학습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는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처럼, 유쾌한 청춘들의 지식 쇼라는 ‘어쩌다 어른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쉽게 전달하고자하는 ‘테드’처럼, 짧은 내용이지만 장병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을 인성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편집, 제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실제 이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군은, 2016년 개인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인트라넷 국방 정신전력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본정훈·시사안보’, ‘전쟁과 스포츠’, ‘전장심리’를 비롯한 ‘인성교육용 동영상’과 ‘웹툰’ 등 블로그 형태의 군의 정신전력을 위한 콘텐츠를 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학생,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정신전력원이 발간하는 ‘국방인문총서’ 시리즈, ‘정신전력연구’와 ‘정신전력강화논문’도 볼 수 있어¹⁾ 민의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1) 국방일보. 2017년 11월 13일 게재기사 <블로그로 읽던 인문학 단행본으로 만나다> 中 발췌

4.1.3 반복노출과 점화효과의 활용

장병들에게 한 문단 독서나 시청각 교육 외에, 제한된 시간에서 필요한 인문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키워드에 대해 반복노출로 말미암은 점화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다.

반복노출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대상에 대해 점차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¹⁾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자극을 더 선호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자존크(zajonc)에 의하면 단어의 반복 노출은 반복된 단어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단어들이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²⁾

점화효과는 먼저 제시된 자극(점화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표적 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암묵적 기억이 작용하여 무의식적으로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경험했던 무엇인가가 다음에 할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대통령이 특정 어휘를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도 점화효과와 연관된 것으로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각종 대국민 연설에서 특정 어휘를 반복 사용하여 훗날 국민들이 그를 떠올릴 때 특정어휘가 연상하는 개념들이 활성화되어 이미지로 연상된다.³⁾

이에 관해 심리학자 존 바그 교수(John Bargh)가 글자나 말이 사람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연령대가 같은 일반인을 두 팀으로 나누어 A팀에는 힘겨운 노년이 연상되는 단어(안락의자, 은퇴, 황혼, 쓸쓸함 등)를 주고, B그룹에는 생동감과 활기찬 느낌의 단어(청춘, 스피드, 열정, 스포츠)주어 간단한 문장을 만들도록 하였다. 팀별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작문을 한 뒤 나오는 모습을 관찰한

1) 이현우. (2002).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심리』. 서울: 더난출판사, p.124

2) 김대행. (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266

3) 이동훈 외. (2012).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147

결과 B팀 구성원은 모두 활기차고 경쾌한 모습으로 실험실을 나왔으나 A팀원은 실험 전보다 활력이 없는 모습으로 천천히 느리게 복도를 걸어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즉 사람이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뇌는 관련된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의식중에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성교육에 있어 반복효과와 점화효과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의미한다.

현재 전 부대가 인성교육을 위해 고심을 하며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선부대에서는 딱딱한 교육의 틀을 벗어나고자 난타와 같이 타악기를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음악, 캘리그래피나 클레이아트를 통한 미술, 만화 또는 소설과 같은 서적을 읽는 독서 등 장병들이 쉽고 즐겁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병영생활의 긴장을 풀며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나아가 전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인해 양보와 배려심의 생성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인성교육의 목표에 얼마나 근접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일수록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그것이 비록 교양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개인의 소양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과 효와 예를 높이는 인성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환경적인 요인이 갖춰져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활동은 장병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하거나, 시의 어느 한 구절, 혹은 책속의 한 줄을 발췌하여 매일, 매주, 매월, 혹은 연간, 달성하고자 하는 슬로건과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점화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활동, 음악활동, 독서활동을 하더라도 주어진 인성교육의 목표와 연계하여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

반복효과와 점화효과가 인성교육을 위한 학습에 중요한 이유는 관리자와 장병들이 인성교육을 위한 학습내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사들에게는 길게 느껴질 21개월이지만 기본군사훈련을 포함한 여러 훈련들로 인해, 인성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인문학을 접하여 군이 기대하는 습관을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반복노출과 점화효과 이외에도 효율적인 방법들로 장병들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합하게 활용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전우애로서 동료를 사랑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4.2 군 인성교육과 사회적 연계

4.2.1 군 인성교육과 사회적 연계의 필요성

현대 국가의 안보 기능은 국가안전보장 및 인간 안전보장과 국가 발전에 관련된 영역에서 민과 군이 공유하여 성립할 때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된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이 단순한 군사대비태세가 아닌 정치·경제·과학기술을 비롯하여 사회·심리·교육·문화 등의 사회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 걸쳐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가안보의 정책결정과 대비태세의 정립은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고도로 측정되어진 군 기획의 산물임과 동시에 민간인의 전문지식과 국가자원의 동원 및 배분에 관한 문민화 결정의 산물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의 목적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태도와 가치의 함양에 있으므로 군 조직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서 사회는 군인성교육이 강인한 국군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상황시 군의 국방능력을 최대

1) 조영갑. (2005). 『민국관계와 국가안보』. 경기: 북코리아, p. 36-37을 인용하여 재구성함.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후 제대하는 장병들이 사회 복귀 시 지·덕·체를 고루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임을 인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군 조직의 특성과 각 군의 조직문화, 특히 이념과 가치관에 부합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군 인성교육 관련 군관계자들과 공유하여 사상적으로 부적절한 인성교육을 하지 않도록 긴밀한 사회적 연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첫째, 정신전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군 인성교육에 있어 필요한 7대 덕목을 용기·창의·충성·존중·정의·책임·협력으로 정의하여 모든 덕목의 고른 신장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덕목을 제한된 병명생활에 적용하여 고르게 신장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성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군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이 결합한 교육으로 단순히 군 내부에서 실행하는 인성교육보다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정신전력을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 복무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제고로 인해 국가전체의 정신전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에 대한 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먼저 긍정적인 견해로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된다’는 말과 같이 군대를 다녀오면 다양한 인간관계와 상하관계 따른 여러 행위들의 갈등을 겪고 극복해 나가며 보다 성숙해져 사회적응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는 인생에 있어 사회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체력 또한 인생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20대를, 군이라는 조직에서 엄격하고 통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손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긴밀한 사회적 연계가 필요하다. 군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인성교육을 통해 선진 국민으로서의 정신전력 강화 교육의 도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사회의 인력을 양성·배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추진, 국민의 선진 민주화 의식 고양에 기여하여 군 복무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제

고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장병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성 함양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위해 우리 군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프로그램편성과 활동의 다양화와 특성화, 고급화 등에는 군 자원만으로는 큰 기대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기관의 풍부한 자료와 자원을 지원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성의 함양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화할 수 있도록 대화, 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의 현실 체화적 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 사회에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부각시켜 해당 장병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자발적 참여 등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인성교육은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체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개발과 적용이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뿐만이 아닌 군과 사회조직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연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계로서 [그림4-1]의 인성계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겠다.

※ 인성계발 교육효과¹⁾



[그림4-1]

1) 육군교육사령부, (2001.08). 업무보고, p.6

4.2.2 군 인성교육의 사회적 연계방법

4.2.2.1 군(軍) 주도 사회적 연계방법

사회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장병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복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병영 내 사건·사고를 유발하여 군 전체의 사기 하강, 민간사회의 대군 신뢰도를 저하를 시킨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육군에서 실시하는 [표4-2]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세스’이다.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세스’는 입대 장병들이 군 복무가 자신의 가치와 잠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으로 생각토록하기 위해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리더십과 인성을 함양하며 전역 전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¹⁾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보람을 느끼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²⁾

1) 국방홍보원 2013.02.12 기사 중 발췌. <해당사이트: <http://demaclub.tistory.com/1128>>

2)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6). 『군(軍)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양서원, p.37

[표4-2]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세스¹⁾

1단계	입대 전	유·청소년 대상 군 친밀감 고취 (나라사랑교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		
2~4 단계	자대 복무	군 생활과 인생비전 설계로 생산적인 복무 도모		
		입대	위풍당당교육 (신병교육대)	군 생활 조기적응 및 자신감 배양 (군 생활 바로보기, 병영생활 애로사항 대처요령)
		전입 (이병)	비전설계교육 (전입 1개월)	자발적인 군 생활, 인생 재설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방법, 군 생활 설계를 통한 비전 작성)
		복무 중 (일병~병장)	인성함양교육 (연 2회)	리더십과 팀워크 증진 (리더가 되는 길, 의사전달 기법, 팀워크 증진)
		분대장 (병장)	리더십교육 (분대장교육대)	분대장으로서 품성, 임무수행능력 등 리더십 배양 (분대장 역할, 책임인식 리더십, 팀워크 형성 실습)
		전역	미래설계교육 (전역1주전)	군 복무가치 제고, 직업 선정 등 사회진출기반조성 (군 생활 돌아보기, 직업정보제공 등 인생진로 설정)
5단계	전역 후	복무부대와 친목유지 군 지지계층 형성 (동기카페, 전우초청행사 등)		

[표4-2]과 같은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사회와 연계하여야만 할 것이 1단계, 4단계, 5단계이다.²⁾

1단계는 입대 전, 잠재적 입대 대상자인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

1) 국방일보 2015.03.17. 기사 중 발췌.

<해당사이트: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4&bbs_id=BSMSTR_000000000004&ntt_writ_date=20150318>

2) 이하 육군본부의 “군 복무 패러다임의 전환,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세스”(2013)中,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 함.

로 군에 대한 친밀감을 고취시키는 단계로 체험식 안보교육인 나라사랑 교육(초·중·고 대상)과 장군단 모교방문, 부대개방행사, 지자체와 연계된 Army Camp, 각종 군 관련 경연대회 등을 부대별 여건에 따라 활성화 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대군심뢰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표4-3]와 같이 청소년 호국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호국수련활동으로는 1일 부대 방문 견학프로그램인 부대 견학과 초병 경계근무 체험 등 단순 부대 견학 이외의 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병영체험, 한국전쟁 당시 전적지를 따라 차량 및 도보로 행군하는 전적지 행군 및 군의 장소지원을 포함하여 기타 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특별캠프가 있다.¹⁾

청소년 호국수련활동은 청소년 단체의 지원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여인원수의 통계 증감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나 군이 청소년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해군진해기지사령부는 지난 10월 유소년 통일단에게 의장대 공연관람, 진해 군항 명소 투어, 함정 견학 등의 안보체험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 외에 간접적인 방법도 있는데 지난 9월 대전 중앙과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청소년 나 BE한마당’의 직업체험이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 나 BE한마당’에는 100여개의 직업체험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육군과 해군, 공군, 특전사와 해병대가 각 부스를 열고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는 길을 설명하였다.

비록 직업적인 부분으로 참여하였으나 이런 활동은 많은 학생들에게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임하는 멋진 제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은 군인이라는 직업에 호감과 더불어 군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군은 병영체험 외에 이러한 직업적인 체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여러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겠다.

1)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 p.10

[표4-3]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43,058	45,131	47,150	44,227	21,480
부 대 견 학	소계	25,690	25,118	31,041	24,037	14,245
	육군	7,300	9,698	7,471	10,007	3,000
	해군	14,790	12,390	20,620	11,620	9,240
	공군	3,600	3,030	2,950	2,410	2,005
병 영 체 험	소계	7,930	4,770	9,124	5,880	4,105
	육군	5,260	3,590	7,979	4,990	3,420
	해군	1,310	700	905	605	305
	공군	1,360	480	240	285	380
전역지 행 군	소계	-	-	3,850	1,590	1,355
	육군	-	-	3,355	285	1,080
	해군	-	-	495	1,305	275
특 별 캠프	소계	9,438	15,243	3,135	12,720	1,775
	육군	9,260	15,065	2,475	12,480	1,295
	해군	90	90	420	-	40
	공군	88	88	240	240	440

4단계는 전역병 미래설계 교육으로, 전역병을 대상으로 군 생활을 정리하고 ‘나는 육군이였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와 인생설계 등의 내용을 전역 한 달 이전에 2~5일 동안 시행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상담 등이 진행된다. 전역한 장병의 군복무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앞으로 전역할 장병은 물론 입대할 장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군을 접해보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의 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역병의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역병의 미래를 설계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이전에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5단계는 전역 이후 단계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군지지체층을 형성하기 위해 근무했던 부대와 친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홈-커밍데이, 동기카페 결성, 부대별 예비역 체육대회, 전우초청행사, 전역병 해외연수 등 실효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부대별 여건에 맞게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바쁜 사회생활 중에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이러한 부대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꼭 찾아보고픈 병영, 떠올리면 한번쯤은 만나고픈 간부, 동기 등 일상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휴가와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전역병들이 현재 행해지는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람된 병영생활, 선임·후임·동기간의 전우애를 다질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야겠다.

많은 사단에서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사단은 장병들이 매일 한 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써 육군 7군단의 KBS 온라인 미디어 평생교육원과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협약을 들 수 있다. 국가자격증 및 각종 민간자격증의 동영상 강의를 장병들이 온라인에서 무료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개설 3개월 동안 677명이 참여, 그 중 355명이 수강을 마쳤으며 99명이 자격증을 받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 전체 수강 장병들의 42%가 인성 및 심리상담 관련 강좌를 들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적 경쟁력의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 중 자발적으로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장병들의 자발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의 증빙으로 군 인성교육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세스’와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군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식·행동화 프로그램으로 입대 전·후의 장병들이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자유, 기회에 대한 상실감과 박탈감 및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여 군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 보다 적

극적으로 군복무에 임하도록 하여 군인으로서의 사기고취로 군전투력을 제고하도록 하며 또한 군인으로서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으로 실행하되 부대마다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와 효율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2.2.2 관(官) 주도 사회적 연계방법

군인성교육의 사회적 연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 경력을 사회적으로 연계해주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민간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국가와 사회가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우대는 장병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복무동기를 부여한다.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적인 군사강국에서는 군 가산점을 비롯해 공공 기관에서의 제대군인에 대한 의무적 할당 등의 우대사항을 다양하게 부여하며 이를 통해 군인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복무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 복무경력을 사회와 연계시켜 그 가치를 높이며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군 경력인증서의 발급과 이스라엘의 군과 산학이 협력하는 활동이 있다.

미국의 군 경력인증서(Verification Military Exercise & Training 이하 VMET)는 미 국방부 차관 예하의 국방인력자료 센터에서 발행하는, 군 복무 경력 및 교육훈련을 입증하는 인증서로 이 증서를 통해 대학 학점 또는 돈으로 환산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된 시스템이다. 아울러 미 국방부 산하 교육지원단(DANTES)과 미 교육위원회(ACE) 및 각 군 기관이 VMET추진을 지원하여 관련 각 부처 소속 기관들의 상호 협의 하에 개인의 인적 사항과 훈련경력, 부가자격, 직무교육 및 언어 등의 구성으로 군 경험과 함께 여기서 얻은 능력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환산, 정확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VMET의 정보는 공신력을 가지고 통용

된다.

이러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VMET는 이력서와 같은 구직응시시의 증빙서류로도 이용하며 공공기관등에 VMET를 제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제도로 COOL(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Line)이 있는데, 이것은 군인들의 주특기와 관련된 민간 직종, 민간자격증 취득을 돕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군 주특기에 적합한 직업정보와 여러 자격증의 인증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취득하고자하는 민간자격증을 위해 군 경험과 교육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사강국인 이스라엘은 국민 전체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군이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국가 제도의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군과 대학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산학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 유지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경력에 있어 군사 경력이 학문적인 경력보다 더 중요하며 모든 취업인터뷰에서 어느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지가 필수 질문일 정도로 복무경력이 곧 개인의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스라엘 군은 복무 시 군사교육 외에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과 사회구성원으로 교양과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지원하여 제대 후 민간의 삶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이스라엘과 같은 시스템은 군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민간사회와 연계하여 장병들의 군 복무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¹⁾

비록 정부주도는 아니지만 우리 군 또한 이와 비슷하게 현재 병사들이 군복무 기간 중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병들이 사회에 민간인으로 복귀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스템

1) 국방일보. (2013.04.24.). <군 복무 경험의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 中 재구성

이고 필요한 시스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병들의 복무여건에 따라 학습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의무가 아닌 장병들의 자율의지에 따라 학습하는 것으로, 실제 전 장병이 혜택을 모두 누리고 획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간부들을 위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마다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또한 지정되어 있어 전 직업군인이 필요한 혜택을 받기에는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국가정부가 군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로서 현역군인으로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제대군인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제대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체의 정신전력 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예비장병, 현역장병, 제대장병 모두에게 복무 경험이 단순한 일생의 한 부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삶에 연속성을 가지고 연계되는, 가치 있음으로 인식하게 하여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긍심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영생활과 사회생활이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닌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방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 복무경험 자체를 높이 평가해주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하려는 노력이 사회속의 또 다른 사회로서, 인격도야의 장으로서,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들의 인성교육이 사회로 이어져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실체를 가진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4.2.2.3 민(民) 주도 사회적 연계방법

우리 국민들은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복무를 실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처우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며 병명문화의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특수한 조직문화에 있어 민간이 주도하여 군에 제안하는 사항들을 아무 절차 없이 수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연계 방안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연계는 그 어떠한 인성교육보다 장병들을 민주시민으로서의 강한군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배양토가 될 수 있다. 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민간인의 삶에서 군인이 되어 의무적인 군 복무기간을 마치고 다시 민간인이 되어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성 교육 중 책임감과 양보, 자산과 타인에 대한 도덕적인 덕목, 실천위주의 덕목, 타인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삶을 위해 필요한 협력, 자존감과 같은 사회·정서적 덕목은, 민주시민으로서 형성되어야 하는 질서, 예절, 청결과 함께 배양되어야 할 기본생활 습관으로 [표4-4]와 같은 의식 성향을 가진 장병들에게 덕목과 습관의 배양은 ‘교육’보다 ‘학습이 필요하다.

[표4-4] 신세대 장병의 행동 및 의식 성향¹⁾

도덕성 쇠퇴	
정체성 의식의 위기	
표피적 인간관계, 인간의 도구화, 범죄의 포악화	
12무	무분별, 무책임, 무성의, 무반성, 무사명감, 무소신 무관심, 무인내, 무절제, 무규범, 무질서, 무신뢰
4반	반 교양적, 반양심적, 반논리적, 반문화적
3비	비용통성, 비타협성, 비합리성
2불	부도덕, 불법(탈법)

1) 육군 3사관학교. (2002.02). 초급인성교육교재 . p1

교육과 학습은 교육학에서 달리 분류되어 활용한다.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과 달리 ‘학습’은 연습 또는 경험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학습이란 행동의 변화이며 연습·훈련 또는 경험에 의한 변화로서 영속적이어야 하며 바람직하고 진보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내제적인 변화과정으로 직접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닌 수행(performance)로 표현¹⁾된다. 아울러 학습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으로 인간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생물적 환경뿐만이 아닌, 사회·역사·문화적 환경이 중요하므로 그에 적응하기 위해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²⁾

이러한 의미로 병사들에게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습으로서 인성의 덕목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적응과 병영문화 개선만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이외 어떠한 사회조직체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도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조직구성원이 되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인성교육과 ‘시민’으로서의 인성교육을 민간에서 주도 하는 다양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습’한다면, 비록 군이라는 조직을 위한 인성교육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에 있어서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인성함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연계방법으로는 첫째, 청소년과 청년들이 애국심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다. 예비 장병들로서 사명감과 의무병역자로서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사전에 형성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병역자들의 군에 대한 이해심 향상으로 인해 장병들에 대한 인성함양과 필요에 대한 사회의식의 기저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하고 학교기관

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1995).

2) 두산백과 사전 中 발췌하여 재구성

들 등과 연계하여 장병들이 인성의 덕목들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경제활동을 영위하여야하는 사회인으로서 제대이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의 지원 또는 장병들의 성실한 군복무가 건전한 복무가치로서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형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와 국민의 위한 헌신으로 발생한 사회적 공백을 사회전체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복무시의 태도와 같은 부분들이 이러한 지원 기관과 연장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의 복무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장병들의 착실하고 정직한 병영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4.3 효과적인 군 인성교육을 위한 7원칙

인간은 되어있는(being)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becoming)존재이다.¹⁾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병영문화 정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선진시민으로서의 참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군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실패와 실수의 오류를 다잡고 좋은 부분들은 더욱 발전시키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해 본문에서 제시한 군 조직의 대표 병리현상과 그의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보아 미국의 인성교육연합²⁾의 웹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4-5]인성교육을 위한 11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군 인성교육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군 인성교육을 위한 7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하였다.

※ 군 인성교육을 위한 7원칙

1) 한우리 독서 문화운동본부교재집필연구회. (2005). 『독서 교육론 독서 논술 지도론』. 경기: 북코리아, p. 90

2) The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CEP). 미국은 80년대 이후 교내 폭력과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면서 종합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여 수준별 창의인성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이트:<http://character.org/more-resources/11-principles/>>

1) 군 조직은 군인으로서의 군대윤리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인성역량을 근간으로 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을 군 인성교육의 핵심으로 한다.

인성교육에 있어 인성역량을 기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중에 핵심요소를 무엇으로 정하여 어떤 인성역량을 핵심으로 삼을 것인가는 곧 인성교육의 방향성, 지향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덕성을 기본으로 지적교양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양하거나 창의인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창의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있겠다. 군의 인성교육 또한 보편적인 '인성역량의 함양'이라는 것은 민간 사회조직과의 인성교육과 동일하다. 국방부에서 지정한 7가지 핵심요소인 개인의 창의, 책임, 용기와 대인관계에서의 존중, 협력 그리고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충성, 정의의 요소는 객관적인 인성역량의 요소인 덕목과 가치를 중시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교육하되, 또한 군 조직의 구성원인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인성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 있겠다.

즉, 군 조직은 특수한 조직으로서 인성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강한군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의 인성교육은 군대 윤리와 민간사회의 인성교육의 덕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함양하여야 할 근간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보편적 윤리가치로서 개인이 달성한 윤리적 가치의 상호전달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에만 허용되는 "다양한 선의 현상"인 '공동선¹⁾'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따라서 모든 군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덕목(절제, 배려, 책임, 정의 등)과 인성역량(도덕적인 문제해결능력, 대인과 의사소통의 능력 및 자기위기관리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등)의 결과는 '공동선²⁾'으로의 발현으로서, 장병개인의 인성함양을 통한 도덕적이고

1) 최신한. (2009). 『지평 확대의 철학』. 경기: 한길사, p. 295를 인용하여 재구성함.

2)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善), 즉 공익성으로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의 추구는 현대사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인간은 공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면 그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의 연대의식은 무너지고 만다. 다만 경계해야 할 점은 공익우선의 원리를 앞세워 집단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공공선이라는 가치의 추구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과 모두가 다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하

군대윤리적인 행위가 타 장병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유기적인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군 조직은 장병들이 '지·덕·체'를 고루 발현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선진민주시민이자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군인을 지향한다. 따라서 군은 장병들의 지성과 인성 및 체력이 고루 발달할 수 있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성교육으로는 민간 외부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문학 관련 교육과 군 내부교육을 통한 장병의 보직에 적합한 군사교육과 전문특기교육을, 인성교육으로서는 사회윤리와 군대윤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전력의 강화를 꾀하며 민간인이자 군인으로서의 국방가치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군인으로서의 무력은 오로지 국가 비상시 국가방위의 행위 안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함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인한 군인으로서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장병들이 개인의 체력단련과 각 부대에서 실시하는 집체훈련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집체 훈련 이수 시 미흡한 부분에는 비난이 아닌 해당 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배려를 통한 능력배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개인으로서의 자기성찰을 통한 시민정신의 정립과 군 조직에 대한 이념을 통한 건전한 군인정신의 확립이 전 병영생활에서 연계되어 일어남을 장병들에게 주지시키고 지성과 인성의 교육이 집체훈련과 같은 체력훈련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언제나 군 인성교육의 핵심 근간임을 강조하여야겠다.

3) 군 조직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이 이

동석 외.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中 발췌 .

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병영생활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올바른 병영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병영문화의 개혁 수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은 단일화 혹은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병과와 부대, 소속된 대원들의 특성에 따라 공식적 교육과정과 비공식적인 교육 등의 모든 것을 고려한 전체의 교육과정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여야겠다.

부대마다 민간사회와 협력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인성교육 모델들은 타 부대와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군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최종목표, 가치관은 동일하며 군 조직에서 정한 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큰 틀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따라서 군 조직은 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제시하여 교육자들이 체계적이고 적합하며 일관적으로 구성된 인성교육을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 교육자와 장병들이 다양한 사회교육¹⁾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성교육을 통해 공고한 전우애로 다져진 배려와 나눔의 병영문화를 정립하여야 한다.

군 사회는 장병 스스로의 생명을 담보하며 전우애의 믿음, 즉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수호하는 단체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로

1) 대개 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를 준거로 가정교육과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시간을 준거로 학교교육의 이전이나 다음에 오는 교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교육이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과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 실시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을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 강습소에서 행하는 교육, 도서관 이용에 의한 사회교육, 방송통신교육에 의한 사회교육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으로 각급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와 각 산업체 및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사업을 통틀어서 사회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두산백과』 中 발췌.

은 사회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장병들 간(병사와 병사, 간부와 간부, 병사와 간부)의 신뢰관계를 비롯하여 군과 사회 간에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고 배려 받는 관계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인정받고 있다는 성취감 그리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양성시킨다.

신뢰와 배려의 문화가 군 전반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통의 방법이 필요하다. 계급과 개인 서로간의 차이와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군내 부당행위에 관해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인 군기강의 올바른 확립의 요구를 위한 조직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먼저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신뢰하며 병사와 병사간의 배려와 신뢰, 간부와 간부간의 배려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 구성원이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 구성원 누구에게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상급자는 해결방안을 비롯한 상담 등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군은 군인복무규율과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압박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호간, 상하간의 제재를 용납하지 않음과 동시에 불관용의 원칙을 고수함을 명시한다. 이러한 기반은 한 개인으로서의 상호존중과 군인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인 전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전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군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문제해결 관련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장병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군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5) 책임교육자를 비롯한 전 군의 상급자는 장병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장병들의 군 생활 전반을 올바른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책임 교육자들이 해당 장병들에게 모범적인 역할모델이 되어야하며 평범한 시민이자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급자들은 군 전반적인 병영문화에 있어 장병들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환경적 요소임을 깨닫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인이 된 병사들에게 상명하복과 절제되고 강제되는 단체 생활에 대한 군대윤리를 사회적 윤리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연결지어 군대윤리와 사회윤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저 내 청춘을 소비하고 간다, 정해진 시간까지 버티다가 보면 그만이기예 이러한 교육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용이 있느냐에 대한 무기력하고 안이한 생각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군필자들에게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군대'라는 조직이 그들의 삶에 있어 군인과 시민으로서의 정신력과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관련 교육자와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급자들은 올바른 군인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스스로의 면밀한 성찰과 공고한 신념을 정립하기 위한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하위 계급자들에게 도덕적 귀감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6) 군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군 인성교육을 위한 협력자로 민간사회공동체와 협력한다.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하는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모든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민간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과 제복을 입는 군인의 생활은 다르다. 민간인으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삶, 개인적인 생활에의 제약과 통제가 없는 자유를 영위하였다면 군 생활은 엄격한 단체생활을 하는 조직일원으로서의 행동, 군인으로서의 복무규율을 중시하여야하고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이러한 민간인과 군인의 삶, 사회와 군의 분위기와 문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갓 입대한 병사들에게 군대윤리는 군 조직에서의 모든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자유의 박탈이라는 상실감, 이로 인한 구속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병사들이 느끼는 사회와 군, 민간인과 군인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군과 사회가 군인으로서, 시민으로 인성교육을 위해 꼭 함양하여야 하는 덕목들에 대해 공유,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군인성교육에 포함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가정이 자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덕교육자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학교는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인성교육이 단순한 군 조직 구성원의 인성교육만을 강조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 모두가 연계하여야 하는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노력하고자 한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내고 지지 받을 수 있는 군인성교육의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다.

민간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가 군인인 부모님들과 해당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어떤 인성 덕목을 양성하여야 하며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군의 병영생활에 있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재능기부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이 있다.

물론 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이 군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을 결정할 수는 없겠으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군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추구하는 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에 관한 군 조직과 사회의 신뢰형성을 하여 군 인성교육을 위한 사회전

반적인 협력의 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
인성교육을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7) 군은 군 장병들에게 행해지는 인성교육의 실제 영향력과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과정에 있어 평가의 문제는 목표 및 과정과 함께 교육과정결과
의 가치를 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군 인성교육에 대
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각 병과, 부대,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평가과정과 수단을 활용하여야하
며, 군 조직이 지향하는 군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들이 학습자인 장병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였는가? 에 대한 효과
의 검증, 그리고 교육자들이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
행하였는지,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에 대
한 총체적인 검증이 되어야하겠다.

특히 교육에 학습자로서 참여한 장병들이 평가의 대상이 아닌 스스
로의 향상에 대한 평가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은 지식이 아닌 도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어떤 순위 또는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심사의 대상으
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을 교육자들에 대한 교
육방법의 개선, 프로그램의 개선점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내용은 학습자들의 인성역량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각 요소의 적절성과 성과 및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프
로그램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장점을 보강하고 단점은 개선하여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또는 작은 단위마다의 인성교육 평가는 군 전체의
전반적인 인성교육 평가에서 산출-투입-재산출-재투입의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핵심역량 양성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군인’이라는 목표를 통해 이룩된 공적 또는 가치에 대한 조사·심사·결정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어야 한다.¹⁾

군 조직은 합리적이고 적합한 평가를 위해 평가의 시기와 평가 담당자, 평가의 대상과 단위를 명확하게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평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여야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군의 인성교육이 지·덕·체를 겸비한 도덕적 시민으로서의 군인을 양성하고 있는지, 병영문화가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조직단위와의 지속적인 피드백의 강화를 통해 향후 인성교육의 과정과 프로그램에 반영,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1) 배장오. (2007). 『사회교육론』. 경기:서현사, p.244-247을 인용하여 재구성함.

[표4-5] CEP의 인성교육을 위한 11가지 방법¹⁾

구 분	내 용
1	The school community promotes core ethical and performance values as the foundation of good character. 학교 공동체는 훌륭한 인격의 기초로 핵심윤리와 인성역량을 장려한다.
2	The school defines "character" comprehensively to include thinking, feeling, and doing. 학교는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인성"을 정의한다.
3	The school uses a comprehensive, intentional, and proactive approach to character development. 학교는 인성개발에 있어 포괄적이고 의도적이며 능동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한다.
4	The school creates a caring community. 학교는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5	The school provides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moral action.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행동을 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The school offers a meaningful and challenging academic curriculum that respects all learners, develops their character, and helps them to succeed. 학교는 모든 학습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그들의 인성을 개발하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의미하고 의욕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7	The school fosters students' self-motivation. 학교는 학생 스스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The school staff is an ethical learning community that shares responsibility for character education and adheres to the same core values that guide the students. 교직원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지침이 되는 핵심 윤리와 동일한 핵심윤리를 고수하여야 한다.
9	The school fosters shared leadership and long-range support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itiative. 학교는 인성교육계획의 장기적인 지원과 공유된 리더십을 키운다.
10	The school engages families and community members as partners in the character-building effort. 학교는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을 인격 형성을 위한 협력자로 참여시킨다.
11	The school regularly assesses its culture and climate, the functioning of its staff as character educators, and the extent to which its students manifest good character. 학교는 학교조직문화와 인성교육자로서의 교직원의 역량이 얼마나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성을 이끌어 내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이트:<http://character.org/more-resources/11-principles/>>

V. 결 론

근대에 들어 우리 사회는 여러 원인으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날로 더해지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인성을 교육하는 법안이 세계최초로 법제화되어 실행 중에 있다.

각종 사회병리 현상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 즉 신세대 장병들이 입대를 하여 군조직의 특유의 조직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병영 내 부조리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 또한 지속적이고 집단적 폭행으로 인한 사망, 총기탈취 및 난사사고 등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군은 물론 사회전체가 장병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군 조직 또한 인성교육을 간부, 장병 등 전 조직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성교육 실행 초기, 상담심리학에 치우친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많은 장병들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과 함께 인성교육이 군 조직 전반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재 지휘관들은 각 부대의 환경여건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 장병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폐쇄적인 군 문화를 보다 개방적이고 활기차게 변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병명문화의 혁신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하나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지속적이고 가치 중심적이어야 할 인성교육이 장병들의 흥미와 참여, 지지율에 편승해 일회적이고 유희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군 전체 인성교육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이 ‘무엇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어떠한 목표를 지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 군의 인성교육이 보다 효율적이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민관군이

개발하는 인성프로그램에 있어 공동이 추구하고자하는 원칙을 제안함으로서 우리 군의 인성교육이 제고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군이 실시하는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로서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도덕적인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및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의 함양을 지향하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인성교육에의 노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성교육으로 인한 올바른 병영문화에 대한 인식개혁을 필두로 신뢰와 배려의 문화가 군 전반에 정착하여, 올바른 군기문화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군인을 육성함과 동시에 전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장병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성교육에 대한 장병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군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장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접할 수 있되 올바른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민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러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건전한 정신을 가진 강인한 군인의 양성’이라는 인식을 주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인문학을 활용한 교양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행함과 동시에 정부·민간사회와 연계하여 군조직과 사회가 순환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종국에는 장병들이 현재의 군복무를 가치 있게 여기고 군인임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군 복무 기간의 인성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 전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 군이 군 인성교육을 통해 국가 전체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 군이, 군의 각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인성함양으로 배려와 신뢰가 있는 전우애를 기반으로 병영부조리를 근절하며 적의 도발을 능가하는 정신전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예비 장병들과 현역 그리고 예비역들에게는 ‘남자라면 한번 가 볼만한 곳이 군대’ 내지 ‘남자라면 반드시 가볼 곳이 군대’라는 국가방위의 의무를 다함이 자랑스러운 군으로, 부모님들에게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 철이 든다.’라는 말처럼 배움과 인성도야의 장으로서 믿고 보내는 군으로, 민간 대중들에게는 사회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음으로 인해 신뢰받는 군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연구보고서/논문

- 고삼곤. (2003). “군 인성교육을 위한 사병들의 욕구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형. (2008). “군조직의 지휘관과 병사 간 관계(LMX)가 병사의 인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옥. (2007).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2013) “군 복무 패러다임의 전환,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세스”. 육군본부.
- 이선아. (2003). “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석환. (2017). “육군훈련부사관의 인성교육 수행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경수. (2006). “정보화 사회의 군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 단행본

- 김경동. (2000). 『선진한국, 과연 실패작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난도 외. (2016). 『트렌드 코리아 2017』. 서울: 미래의 창.
- 김대행. (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현 외. (2011). 『군대윤리』. 서울: 백산 출판사.
- 박균열. (2015). 『군인정신과 군 생활』. 경기: 21세기사.
- 배장오. (2007). 『사회 교육론』. 경기: 서현사.
- 서성원. (2012). 『태권도년』. 서울: 애니빅.

- 양점도 외. (2008). 『사회복지학 개론』. 경기: 광문각.
- 온만금. (2014). 『군대와 사회』. 서울: 황금알.
- 유길준. (2005). 『논술특강자료집』. 북타운. p.125-126.
- 육군교육사령부. (2015). 『병영상담』. 국군인쇄창.
- 이동훈 외. (2012).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성록. (2007). 『비영리민간조직 갈등관리론』. 서울: 미디어숲.
- 이현우. (2002).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심리』. 서울: 더난.
- 임영규. (2005). 『독서는 힘이 세다』. 서울: 다산북스.
- 정창우. (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 교육과학사.
- 조영갑. (2005).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경기: 북코리아.
- 주성수 외. (2007).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 차영구. (2009).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 최신한. (2009). 『지평 확대의 철학』. 경기: 한길사.
- 한정주. (2008). 『조선 지식인의 독서 노트』. 경기: 포럼.
-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6). 『군(軍)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양서원.
- 한우리 독서 문화운동본부교재집필연구회. (2005). 『독서교육론
독서 논술 지도론』. 서울: 위즈덤북.
- 국회인권포럼. (2005).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제23회
국회인권포럼 정기심포지엄 자료집』.
- 가토슈이치. (2014). 『독서만능』. 이규원. 서울: 사월의책.
- 리처드 코지 외. (2004). 『SMART 리더십』. 서울: 비즈니스 맵.
- Daniel W. Midura 외. (2008). 『팀 활동하기의 원리와 실행』. 이재용 외. 서울: 대한미디어.
- Karl Clausewitz. (2006). 『전쟁론』. 김만수. 서울: 갈무리.
- Niccolò Machiavelli . (2015). 『군주론』. 강정인 외. 서울: 까치.
- Seth Godin . (2015). 『세스 고딘의 시작하는 습관』. 유영희. 서울: 21세기북스.

다. 관련사이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http://www.crimestats.or.kr>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

미국 인성교육연합. <http://character.org>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military

Yong, Seong-Ju

Major in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Th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Korea military is obligated to provide more intens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to all members of the military, due to the violent death and mass shooting in military camps in 2014. Hence, the character education as a “true soldier with competence and personality as a democratic citizen” is being implemented for all members of the military. The program also goes beyond the stereotypical framework such as commissioned officer based counseling. It is carrying out various and autonomou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of each unit. These efforts are to improve the character education so that it leads to more open, autonomous, and free military culture and also in order to intensify spiritual power by cultivating the character of the soldier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a way to raise the awareness and interest of soldier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o learn more efficiently. In addition, we tried to suggest a way to enhance the character education of the Korea military by proposing public’s

communal principle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co-developed by the public, government, and the military.

The character education will strengthen spiritual power of soldiers by cultivating ‘a strong soldier as a mature democratic citizen.’ It will be implemented through improving refinement, using various humanities, for the strong and trusted army. It is a character education in which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society circulate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In other words, the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not only one-time event but can affect individual life 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orts of the Korea military to strengthen the spiritual power of the whole nation through military character education.

Keywords : character education in the military, civil military relations, military and humanities, improvement of the military culture, the value of military service